



제2977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최태원, 유엔대사 만나 부산엑스포 홍보 2

아이오닉5·EV6 글로벌 10만대 질주 14

코스피(23일 전주 대비)	2290.00 (-92.78P)	코스닥	729.36 (-40.68P)
환율(달러당 원화)	1409.30 (+21.3원)	금리(국고채 3년물)	4.199% (+0.432%p)

허위결제·초과청구... '서비스 바우처' 281억 부정수급

(5년간)

장애인·산모 지원 등 악용 빈번
거짓 돌봄 제공하고 보수 챙겨
카드·단말기 있으면 결제 허점
"대상자 관리·현장점검 강화를"

김모 씨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로 두 자녀의 심리 상담을 신청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1명이 자녀를 포함한 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느 날 김 씨는 바우처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리 지원 서비스의 집단 규모가 최대 1:3이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를 위반해 1:5로 상담을 진행했고, 심지어 5명에 대해 각각 1:1 상담을 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상담 아동들

에게는 허위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박모 씨는 학생인 이모 군에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로 보수를 받았다. 이 군의 보호자는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금액이 과도하게 결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씨가 그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온 것이다. 이 군의 등하교 시간은 9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가 전부였다. 나머지 4시간 동안 이 군은 수업을 받았는데 그 시간까지 결제해온 것이다.

임모 씨는 장애아동인 최모 군에게 새벽 시간에 1~2시간씩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대가로 바우처를 통해 보수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 군은 단 한 번도 그 시간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현장

조사에서 적발됐다. 임 씨가 최 군의 카드를 지니고 있다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허위 결제해 왔던 것이다.

취약계층이 주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누적 금액은 281억 원 규모였다. 적발된 센터 수는 총 612곳이다. 부정수급 적발 업체 수는 2018년 141곳, 2019년 142곳에서 2020년 91곳, 2021년 98곳 등 다소 줄었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장 점검 수가 줄어든 탓이다. 올해는 8월까지 140개소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건수와 별개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8년 22억 원, 2019년 37억 원, 2020년 44억 원, 2021년 73억 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액수로만 105억 원을 넘어섰다. 지역별 누적 적발 금액을 보면 경기도가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41억 원), 인천(40억 원), 광주(26억 원), 부산(24억 원), 울산(19억 원) 등 순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란 일정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는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카드다. '공급자 중심'의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카드와 전용 단말기가 있으면 쉽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점 등 허점을 파고들어 △허위청구 △초과청구 △제공인력 간 담합 등 부정행위가 이어져 왔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발달재활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잦았다.

김 의원은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등 통해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범리 기자 kimstar1215@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양성평등이 ESG 경영 핵심"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지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결 - How Gender Impact on ESG?'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패널들은 여성 경제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양성평등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벤 벵 프랭클린플턴 아시아 퍼시픽 회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신태현 기자 holjjak@

SH공사 "신사옥 '최대 50층' 개발" 중랑구 "원안대로 21층 짓자" 마찰

"고밀도 검토" vs "상업단지 부담"
전면 재검토... 일정 지연 불가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밀도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인 21층 규모의 사옥으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길 원하는 중랑구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개발 방식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동 SH공사 사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중랑4) 등이 참석해 SH공사 본사 이전에 고밀도 개발과 관련한 안을 논의했다.

2020년 서울시·중랑구·SH공사는 SH공사를 신내동 부지에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3차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내동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도시계획변경도 결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방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도 완료됐

다. 중랑구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SH공사는 신사옥과 관련해 고밀도 개발의 용역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고밀도 개발 관련 용역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랜드마크를 짓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신사옥은 최소 40층 이상, 최대 50층은 지어야 사업성도 나오고 다른 업무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랑구청 측은 개발 방식 전면 재검토보다는 이전 협약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랑구청 고위 관계자는 "고밀도 개발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전 부지가 아파트 한가운데 있어 고밀 개발해 상업 단지로 만드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두 번이나 약속한 상황에서 당초 안대로 빨리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SH공사가 본사 이전은 확정 짓되, 강남 사옥에 일부 기능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평 기자 pepe@·김채빈 기자 chaebi@

협오시설 낙인에... 피명 든 청년임대주택

스페셜 리포트

"집값 빠진다"... 곳곳서 '남비' 사업 중단에 지역 갈등 우려

'쪽방임대 결사반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인근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 글씨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선명히 보였다. 수십 미터 크기 현수막에는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쪽방임대' 네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길가를 따라 내걸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14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임대주택)을 바로 앞 롯데칠성 차량공장 부지에 짓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를 석 달 넘게 내고 있다.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청년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로 멎고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임

대주택사업으로 총 1만 가구 이상의 사업 시행인가가 진행됐지만, 지역 내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사업지역 상당수가 입주자 모집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청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주민 반대가 심해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매년 실패했기 때문이다. 롯데칠성 부지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과 선유도 공원이 가깝고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그럼에도 임대 주민들은 이곳이 청년임대주택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 집 주변에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전형적인 '남비(Not In My Backyard)'다.

인근 H아파트 입주인 A 씨는 "가뜩이나 도로도 좁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지역에 140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지으면 인구가 더 늘어나 주민들이 살 수 없을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한 번만 와서 보시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청년들이 단적으로 들어와 살면 교육환경도 나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들려줬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브랜드 단지나 상업시설이 아닌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년임대주택이 주민들이 꺼리는 '남비' 시설로 낙인찍히면서 지역 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496가구 규모 당산동 청년임대주택은 내년 1월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주변 H아파트 입주인들은 "수차례 주민들이 반대하고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무시하고 다 지어 버렸다"면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좋게 보진 않는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니 그만 물어보라"고 반응했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반대를 위해 만들어낸 논리이므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유엔대사 만난 최태원 “부산엑스포 ‘세계 연대’ 플랫폼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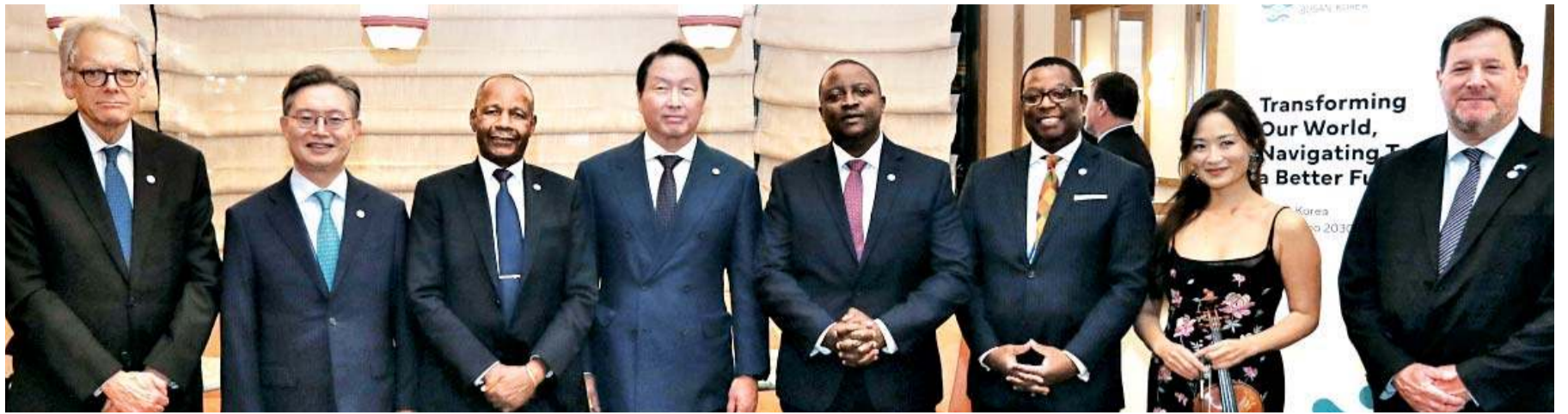
상의, 뉴욕서 ‘한국의 밤’ 행사
잠비아·미국·일본 대표 등 참석
“韓, 인류 당면과제 해결 앞장”
부산 유치 홍보하며 지지 요청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과 손에 잡히는 당장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과 공동과제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 위치한 한식당 ‘오이지미’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날 한국의 성공은 유엔(UN)이라는 세계 공동체에 빚을 진 것이며 우리는 세계를 위해 무언가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주유엔 대사들에게 ‘2030 세계박람회’의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 측에



최태원(왼쪽 네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열고, 각국 유엔 대사를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서는 최 회장 외에도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최경식 삼성전자 북미총괄사장, 임병대 LG전자 워싱턴사무소장 등 대표 기업인들과 황준국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 등이 참석했다. 주유엔 대표부 참석자는 잠비아 대사, 미국·일본·스위스·에스토니아·이스라엘·멕시코 차석 대사 등 10여 명이였다.

황 대사는 만찬사를 통해 “부산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도시로서 경제와 문화 교

류의 핵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세계 각국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유엔 대사들도 부산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사들은 “인류가 당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부산엑스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

다”고 밝혔다.

‘한국의 밤’ 행사는 대한상의가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 자격으로 주최했다. 유엔총회 마지막 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주유엔 대사들과 민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뉴욕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 아니라 퓨전 한식집에서 열렸으며, 최 회장의 한식 홍보도 이어졌다. 이날 메뉴는 꽃갈비, 성게알 덮밥, 찹쌀도넛 등 코스요리였다. 장소를 한식당으로 정한 건 ‘식자회담’의 식자단장을 맡았던 최 회장의 한식 산업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한상의의 얘기다. 앞서 상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두 번째 시즌의 주제를 한식의 산업화로 정하고, 6일 진행된 ‘식자회담’에

서 한식 셰프들이 한식 산업화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유엔총회는 전 세계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인류의 공동의제를 모색하기 위한 분위기 마련에 매우 적합하다”면서 “부산엑스포의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국 유엔 대사를 초청해 부산엑스포의 취지와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2030 엑스포 유치 경쟁은 부산을 비롯해 리아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 등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개최지는 내년 11월 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이다솜 기자 citizen@

8.5조원 규모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7% 이상

고금리 부담을 저금리로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모두 해당)

- 1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등)
- 2 정상 경영활동 영위 차주
-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채무 (모두 해당)

- 1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2 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사업자 대출

신청방법

- 1 지원자격 및 대출현황 확인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 대환 신청 은행 영업점
- 2 대환 신청
 - 은행 앱(App) 또는 홈페이지
 -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접수

“우주 레시피로 구워내는 빵집” 정용진 ‘제이릴라’ 빵 터졌다

신세계 부회장 부캐릭터 앞세운 사업
온라인 베이커리 매출 전년比 61% ↑

신세계푸드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부캐(부캐릭터) ‘제이릴라’를 앞세운 베이커리 사업 덕분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작년 연말 선보인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는 개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37만 명에 달하는 고객이 방문했고, 매출도 급성장했다. 신세계푸드는 차별화한 제품 출시와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누적 방문자 수 36만8000명을 돌파했다. 월평균 3만 6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는 오픈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정 부회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다양한 빵 사진을 게시하며 매장 운영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 부회장 부캐인 제이릴라를 활용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했다. 제이릴라는 정 부회장 영문 이니셜 ‘제이(J)’와 고릴라를 뜻하는 ‘릴라’의 합성어다.

차별화한 제품도 인기 요소다. 판매 중인 약 60여 종의 빵은 우주와 태양계 행성을 모티브로 했다. 대표 메뉴 마블 쇼콜라는 보랏빛 은하수의 화려함을 담은 초콜릿 케이크다.

독특한 매장 콘셉트도 흥행에 한몫했다. 화성에서 온 제이릴라가 우주적 영감을 받아 만든 화성의 빵을 지구인에게 소개해 준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콘셉트에 맞춰 고객이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장을 디자인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레드닷 어워드의 브랜드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으로 경쟁력이 입증됐다.

신세계푸드 베이커리 사업 매출은 급상



신세계 미래형 베이커리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 사진제공 신세계푸드

승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베이커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서 판매된 파베이크(생지를 최대 90% 정도 초벌로 구운 후 급속 동결한 것)와 냉동 조리빵 매출은 102% 증가했다.

신세계푸드는 고무된 분위기다. 주력이었던 식자재 유통, 급식 등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서 벗어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서도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성장세 유지를 위해 신세계푸드는 베이커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우선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더 메나주리는 최근 상하목장과 손잡고 ‘우유 레이어 케이크’를 내놨다. 상하목장의 프리미엄 우유로 만든 100% 동물성 크림을 시트 사이에 겹겹이 쌓아 올린 빵이다. 지난달에는 온라인 전용 신제품 ‘밀크앤허니 클래식 프렌즈 토스트’를 선보였다. 두께 4cm의 식빵을 사용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극대화했다.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6월 국내 빵류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스마트해셋(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선도모형을 도입했다. 스마트해셋은 기존 해셋 관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모든 단계 관리 과정을 고도화한 시스템이다. 한영대 yeongdai@

“닭장 아파트·부담스런 월세... 청년 외면한 청년주택”

‘갈등주택’ 된 청년주택

#.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혼사 문제로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결론에 자괴감이 들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말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높은 경쟁을 뚫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내 몸 하나 누일 집도 없다”며 허탈해했다.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 없이 사회로 내몰린 20·30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행정안전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혼사 사는 20·30세대 가구가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2017년(29.4%)보다 2.9%포인트(p) 늘었다.

1인 가구와 청년·대학생 등 경제적 소외 계층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지속하면서 청년층에서는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년들이 말하는 건 지금 당장 주택을 사고 싶다는 게 아니다. 아무리 저축해도 10년 후에 주택을 못 산다는 게 문제이고,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번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청년을 위해서 30만 가구, 80만 가구나 하는 수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

공급가구 수 늘리려 과밀개발 “주거환경 열악” 지적 잇따라 의무기간 끝나면 임대료 뛰어 주민 거센 반발·민간참여 저조 4년간 공급률 30%에도 못미쳐

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 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조광권 훼손,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30세는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 수요가 급변하는 시기로서 현재처럼 단일화된 주거 공급으로는 해당 세대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의무임대 기간 후 사업주 소유의 임대부동산으로의 전용 등 유인책을 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가돼 고가에 임대되는 등 제도의 미비점도 지적받고 있다.

저조한 공급률도 문제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2022년까지 8만 가구(청년 5만6000가구·신혼부부 2만4000가구) 공급을 자신했던 역세권 청년 주택의 공급률은 현재 약

27.5%에 그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인식이 필요하며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적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독립한 청년은 저소득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높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비용 부담 완화, 기준 미달 거처 거주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흐름임을 감안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석완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취업 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의 모색이 절실하다”며 “접근성보다 가격,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 공급이 가능하며 사업 수익이 공공으로 환원되는 사업 모델에 의해 주거 복지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이동욱 기자 toto@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에 공사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모습. 과밀개발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 “살 만한 집 제대로 지어야”

“최소 50㎡ 정도로 만들어야”

“기반·편의시설 조성도 중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가 다음 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거주택·역세권전셋집 등 구체적인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는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 제한이 있어 질 좋은 주택을 짓기 위한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는 소위 ‘닭장 아파트’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성냥갑’이나 ‘닭장’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인근 주민들 반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3㎡(10평) 미만으로 짓지 말고, 최소한 50㎡(15평) 정도로는 만들어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청약 받은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준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미달 가구가 속출했다.

최 교수는 “과천 주암지구를 보면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미분양이 났었다”며 “전용면적 55㎡ 이하 소형으로만 구성하다 보니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작은 곳에 살고 싶지 않은 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조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고 대표는 “청년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시설도 부실한 경우도 많다”며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들처럼 생활하는 데 편리한 기반시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도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적정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매도 시 시세차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해야 해서 매력이 떨어졌다”며 “어느 정도가 청년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청년원거주택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70%를 얻을 수 있도록 상향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 박민용 기자 pmw7001@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특허청 상표권 획득(등록번호: 제40-1846813호, 2022.3.18)
상해질병도 마음건강도 중요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 이 보험계약은 매달 보험료에 따라 매달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호인수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70세의 모든 예금보통 대장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사보험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억원이며, 5억원만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갱신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신형 담보의 경우 우기는 3,10,15,20,30년이며 최대 경신 종료 나이는 110세입니다. 또한 경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경신 시점 연령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경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경신전)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70395호(2022.06.28~2023.06.27)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KB 손해보험

“성 평등한 이사회일수록 기업 의사결정·혁신에 도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오종남 김앤장 고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백 위원장, 김 은행연합회장, 김 위원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수 우리금융그룹 회장, 최윤열 전 의원,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결 - How Gender Impact on ESG?'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에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조연설

벤 멩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퍼시픽 회장

“이사회 내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성평등하게 구성된 기업일수록 의사결정력이 높아지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벤 멩(Ben Meng·사진) 미국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퍼시픽 회장은 23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젠더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올해 회의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며 “ESG에서 성평등은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벤 멩 회장은 “프랭클린템플턴도 다양성

여성 임원 많을수록 재무성과 높아 기업 브랜드 강화도 긍정적 효과

ESG에서 성평등은 중요한 축 韓 금융권 여성 임원 더 많아져야

과 포용성을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직원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 더 나은 의사결정과 기업 혁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올 초 ‘다양성 팀’을 구축해 각국의 문화 맥락 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포용성 있는 투자도 장려한다. 그는 “자산운용사에서 여성의 수를 높이고자 하는 NGO에 투자하고, 여성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금융권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랭클린템플턴의) 고객사를 보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며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 멩 회장은 기업이 성 다양성을 갖추면 재정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여

성 임원의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재무 성과 외에도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를 높이고 기업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등 다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 멩 회장은 “프랭클린템플턴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디렉터 레벨 이상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와 직원의 개별 성과를 측정할 때 다양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힘줘 말했다.

벤 멩 회장은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국내 기업의 성평등성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를

하나의 성별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권에서 여성이 임원직에 더 많이 오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직원 전체로 보면 약 50%가 여성이지만, 임원직만 따지면 여성이 7% 정도에 불과하다는 리포트를 접한 적이 있다”며 “(여성의 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랭클린템플턴의 경우, 김태희 지사장이 여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프랭클린템플턴 한국법인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태희 전 MSCI 한국지사대표가 발탁됐다.

벤 멩 회장은 더 많은 여성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올바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벤 멩 회장은 “여성 임원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마련돼야 더 포용적인 업무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히영 기자 haha@

“양질의 노동력 확대 위해 ‘위미노믹스’ 중요”

(womenomics)

특별연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산은, 국내 업계 첫 GCF 인증 젠더 영향평가 통해 금융지원 개도국 성불평등 해소에 기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며,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 역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강석훈(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산업은행을 이끌고 있는 강 회장은 산업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젠더(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은 물론, 산업은행도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앞으로 시장 안정자라는 기존 역할과 함께 △공급망 확보의 파수꾼 △신산업 육성의 디딤돌 △산업 대전환의 동반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의 1%포인트(p)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젠더’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위미노믹스(여성+경제학)’,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

히 ESG 경영에 있어서 성인지는 중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 내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의 실업·빈곤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무엇보다 양성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한 저성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위미노믹스’는 양질의 노동력 확대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강 회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이미 양성평등 역량을 확보해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GCF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으로는 최초로 GCF 인증기구로 지정됐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은 GCF 인증기구로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설 경우 젠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젠더 관점을 반영한 여신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양성 평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상장사, ESG활동 의무 공개 추진”

축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女, 경력단절 등 고용 안정성 낮아 균등한 기회 위한 정책 지원 필요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여성 금융인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ESG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주요 전략을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 등 젠더지표는 기업의 ESG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지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 안정성과 경력단절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여성이 47.4%로 남성 31.0%보다 16.4%포인트



나 높았다. 김 위원장은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제165조의20,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이 개정돼서 지난 8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성과”라면서도 “앞으로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정한 고용, 성별 다양성 등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단계적인 의무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사진/산태현 기자 holjjak@·조현호 기자 hyunho@

“女이사 비율, 세계 평균 밀돌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패널 토론

기업 ESG 경영과 투자 스튜어디스십
상장사 女이사 비율 4.9% 불과
성 다양성, 핵심가치로 가져가야
뿐 다수 국가, 가이드라인 도입
韓, 관련 정책 수립 등 노력 필요
선진국 절반까지 女인력 확대해도
20년간 韓 경제성장 걱정 없을 것

한국 기업은 이사회에서 여전히 여성 이사가 글로벌 평균을 밀도는 만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은 여성 이사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은 최은열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원신보 블랙록 아시아투자 스튜어디스 총괄 본부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김태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상무가 참석했다.

최 대표와 원 본부장은 기업도 이사회 의젠더 다양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블랙록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사회 의젠더 다양성을 이유로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에서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특히 올해는 아시아 기업에서도 남성들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 후보 추천 위원들이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은열 전 국회의원(좌장)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패널)



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장(패널)



김태우 MSCI 상무(패널)



원신보 블랙록 아시아(일본 제외) 투자 스튜어디스 총괄 본부장이 영상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사회 의젠더 다양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실제로 젠더 다양성이 기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는 “이사회 의젠더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주가 퍼포먼스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이미 홍콩, 싱가포르, 일

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역시 “글로벌 기업들은 이사회 다양성을 위해 여성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 “여성 이사의 증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이사회 의 효율적 경영 감독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4.9%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이사 비율이 25.6%인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며 “중장기적으로 ESG 경영의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성 다양성’과 ‘포용’을 핵심가치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앞으로 성 다양성을 달

성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점수를 줘서 이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금융권도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 무수히 노력하고 있다. 문혜숙 상무는 “그룹의 ‘유리천장’ (승진 구조) 및 ‘유리벽’ (직무 기회)을 제거하고 여성의 기회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팀원-팀장-부점장-경영진’의 단계별 기반확대로 2027년까지 여성리더 양성 및 성별 다양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사외이사 여성 비율은 28.6%다. KB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여성 부점장과 여성 경영진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상무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성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직 다양성 확보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더 나은 재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성 확보 로드맵에 따른 ‘목표 설정’ 및 단계별 확대 실적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며 “여성 역량 강화 프

로젝트’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장려하고 수용하는 조직문화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 내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MSCI는 매년 11월 여성 관련 이사회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리포트를 발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 여성 리더십 지수 제작에 성공했다.

김태우 상무는 “한국 지수는 2015년 제작하려고 했는데 당시 지수 구성 자체에 실패한 바 있다”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지수 제작을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지수제작 자체는 성공했다. 업계의 수요가 있으면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은열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여성 인력만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앞으로 10~2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은 전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이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기여해서 여성 참여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금융권 女임원 비율 30%까지 높여야”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투자자, 형평성·포용성 등 고려
성 다양성, ESG 중요 지표로 부각

김상경(사진)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올해도 여전히 최하위인 29위로 10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금융권 여성 임원 30%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23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How Gender Impact on ESG?’인데, 성별 다양성이 ESG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ESG의 위험과 기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금융계 내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내년 1월이면 20주년을 맞이한다. 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금융권 여성 임원 30% 만들기 캠페인을 줄곧 주장해왔다”며 “이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매년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



고,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2020년 피터 그라우어 블룸버그 회장 그리고 2021년 샌드라 보스 블랙록 글로벌 투자스튜어디스 총괄 등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여전히 최하위인 29위로 10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세상의 어느 선진국이 다른 국가가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최저 스코어로 10년 연속 꼴찌로 방치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여성 금융인들은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는 여성 한분 한분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조현호 기자 hyunho@

“유리천장 파괴, 법·제도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백혜련 국회 정부위원장

기업 女이사 선임 늘고 있지만
대부분 사외이사로 합류 추세
또 다른 장벽에 막힐까 우려

백혜련(사진) 국회 정부위원장이 “금융계에는 여성의 진출이 아직도 부진하다”며 법과 제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 위원장은 23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ESG 고려 요소 중 사회(S)와 지배구조(G)는 기업의 젠더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의 성별균형은 지배구조와 기업의 젠더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며,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사내 사외이사를 특정 성별로만 채울 수 없게 됐다. 백 위원장은 “이와 흐름을 같이해 최근 여성 이사 선임이 늘고 있지만, 조직에서 성장한 여성 인재가 이사회에 합류하기보다는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추세”라며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여성들이 또 다른 ‘벽’ 앞에 좌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10

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조사 대상 29개국 중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은 꼴찌를 기록했고, 관리직 여성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는 “기업의 젠더 다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업 내 여성 임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편향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계, 특히 금융계에는 여성의 진출이 아직도 부진하다”며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금융계가 여성 진출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둔감한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금융인 네트워크에서는 ‘여성 임원 30% 만들기’라는 강령을 내걸고 네트워크 형성 및 금융포럼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해나가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성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sjy@

“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법안 부작용 대국민설명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대국민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쌀값 안정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따른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지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형평성 우려… 불법파업 조장 노조 편향 정책 청년 미래 영향 거부권보다 여론전 힘 쏟기로 쌀값 안정 위해 45만톤 격리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논의도

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통과를 막을 뻔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당정은 우선 여론전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가진 부작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자는 정도만 이야기를 나눴고, 거부권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사진기자단

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키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짚었다.

당정은 또 급락세에 접어든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10만 톤 이하 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

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범죄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경찰 전문인력 보강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 불기소 사례 전 수조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마련할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윤호 기자 uknow@

Aa2 Moody's 리테일링

자본시장의 성장나침반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나침반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 증권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위해 설립을 내디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습니다.

자본시장지원 |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
 투자자보호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등에 예치한 투자100%의금의 영안보관·관리
 자본시장인프라 | 증권대차중개 및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서비스
 무리사주제도 지원 및 개인·법인·기관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국민의 건전한 재산증식을 돕는 생활금융투자플랫폼 '한국보스증권' 이 한국증권금융의 가족으로 함께 합니다.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맨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금융위, 주식 거래도 제한 시세조종·무차입공매도 포함 법적 판결 별개 증선위서 조치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못한다. 자본시장 거래는 물론 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로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와 자본시장 제한대상자 기준은 동일하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이 포함된다.

임원 선임제한은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 상장사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불문한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업무집행책임자란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있는 ‘임원’ 정의를 활용할 방침이다.

거래 제한 범위는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이 같은 조치를 한다.

다만, 기존 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고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기존 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해당한다.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하고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전 증권사에 전파한다. 송부되는 정보는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보유계좌 정보, 거래제한 기간 등이다. 증선위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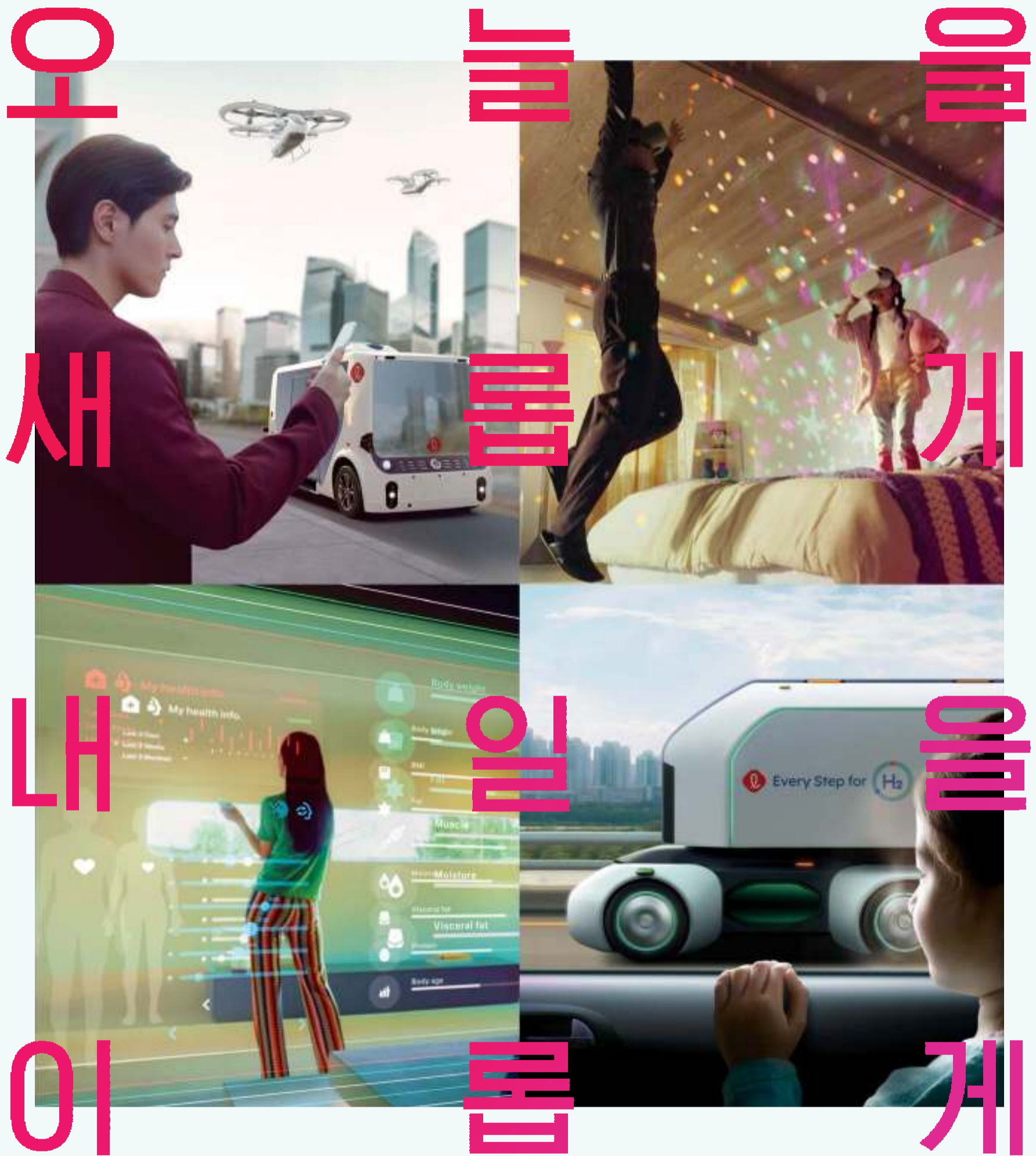
금융위는 이전 조치는 법적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에서 독자 조치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 결정, 법원 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광일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장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Lifetime Value Creator

www.lotte.co.kr



오
 늘
 을
 새
 롭
 게
 내
 일
 을
 이
 롭
 게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이준석·이재명〉

‘제명’부터 ‘재명’까지…李·李 둘러싼 혼돈의 일주일

與 비대위 명운 28일 가처분 심리 판결 전 ‘이준석 기습제명’ 가능성

野, 이재명 ‘검경 수사’ 칼끝에 대통령 순방 ‘외교 참사’로 공격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혼란이 가중될 밖에 없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당규를 바꾸며 꾸린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추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당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치르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기사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꾀할 전망이다. 당 윤리위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총선 출마 등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불투명해진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를 28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열어 이 대표를 제명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심리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진영을 갖춘 민주당은 여당의 혼란통을 틈 타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한 야당으로서 실정을 꼬집으면서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과 ‘사적채용’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정보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해서는 추가 정보가 나올 여지가 있어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한동안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검·경의 칼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초부자감세 저지” 민주, 민생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안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저지하되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안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증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정책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이에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주택자 증부세 중과 폐지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법안도 당력을 집중한다. 민주당은 기존 22개로 선정했던 ‘민생 우선 과제’를 지난 20일 7개로 추려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기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형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의 횡포로 무지막지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약법’이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쟁점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빈손 순방’ 비판에…대통령실 “韓美정상, IRA 협력 의지 확인”

백악관NSC, IRA 논의 ‘고무적’ 2025년 유예할지 조만간 결론

윤석열 대통령실은 25일 사실상 ‘빈손’이라는 비판을 받은 한미·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한미회담에 관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북한 위협 대응과 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주한 건 행사장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개최된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 두 차례다.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양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민의힘 정진석(왼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맨 왼쪽)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화한 시간은 48초에 불과했다. 다만 백악관 NSC에서 IRA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백악관 안보 차원에서 IRA에 따른 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 환담을 계기로 백악관이 IRA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적용 유예를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한일회담에 대해선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 소통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는 ‘정상회담’이라 평가했지만, 당시에는 ‘약식 회담’이라 규정했다. 회담 시간이 30분 정

도에 그친 데다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라고 규정했다. 한일 정상이 약 3년 만에 마주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일회담 개최를 두고 양국 정부가 기싸움을 벌인 끝에 규모가 축소된데다 강제징용 배상 등 예민한 의제는 빠져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홀대’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uknow@

韓총리, 아베 국장 참석차 방일 27일 해리스 美부통령과 회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일본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한 총리는 27일 오전 해리스 부통령과 만난다. 해리스 부통령도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뒤 29일에는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지만, 한 총리와는 이를 먼저 일본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체류하기로 해 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美핵항모 한반도 전개에 무력시위

올 17번째…SLBM은 아닌 듯 한미연합훈련 추가 도발 전망

북한은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

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군 당국이 포착했다. 군은 사거리·고도·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인데, 내륙에서 발사된 만큼 전날 징후가 감지됐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아닐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올해

들어 17개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순항미사일 2발 발사까지 5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포함 유도미사일순양함 찬슬러스빌함(CG 62)

과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 항모강습단은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은 앞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징후가 포착된 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등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호 기자 uknow@

태양광 부추기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2017년부터 5년동안 1만342ha 토지용도 바꿀 때 세금 절반 감면 전북·전남·경북순으로 농지 잠식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35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지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가짜 태양광 시설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의힘 이달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342ha로 25일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 290ha의 35배, 축구장 넓이 0.714ha의 1만4484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08ha로 가장 면적이 넓었고, 전남 2138ha로 두 지역의 전용

농지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1381ha, 강원 1094ha, 충남 789ha, 충북 543ha, 제주 411ha 등이었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 원에 달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2018년 2월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17년 550만 원 수준이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액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72억2000만 원으로 1300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농가에서 태양광 불

이 일어났다"며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불러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열풍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불법 행위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총 2조1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616억 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자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은 점검 대상 가운데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린 경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우 등이 적발됐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나왔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 등과는 겸용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은 받은

사례도 20곳이나 적발됐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美·中 대치 길어질 가능성...韓 반도체·차에 악영향”

한은 “양국, 칩스·IRA·대만 갈등 중국 강성 지도부로 교체 가능성” 공급망 다변화·투자 개선 급선무

미·중간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이 강대국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갈등이 중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중국 301호 관세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CHIPS, 칩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화했다. 아울러 반도체 동맹(Chip 4)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칩스는 미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신규 투자·확장·보수시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25% 세제혜택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필요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2024년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GM(20억달러),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44억달러), 파나소닉과

도요타(38억달러)는 신규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우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도 강경파가 전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총리, 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같은 강대국 대치는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 관측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공장,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공장과 다롄에 낸드공장을 운영 중이다. 전

기자의 경우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이며, 망간(98.6%, 2021년 기준) 등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최종 소비자 및 첨단소재 부품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재현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미·중간 무역갈등이 정치적 갈등과 겹치면서 강경일변도로 돌아서고 있다. 다음달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바뀌는 가운데 보수주의자들이 세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두 가지 법안도 구조적·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3년 만에 불비는 한일축제한미당 한일 민간교류 최대 행사인 한일축제한미당이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일축제한미당은 2005년부터 서울에서 진행했으며 2009년부터 도쿄에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진행하다 올해 '다시 만나는 기쁨'을 주제로 대면 행사를 재개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인가구 기준〉 3000원 올릴까? 동결할까? 전기요금 늦어도 이번주 결정

“한전 재정 위기” vs “물가 위기” 산업부, 기재부와 막바지 협상

4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만약 산업부의 안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000원의 부담이 더 생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이번 주로 미루고 기재부와 막판 협상에 임했다.

산업부의 안은 지난해 결정안 기준연료비 kWh(킬로와트시) 당 4.9원 인상은 물론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kWh당 5원 올리는 것이다. 본래대로라면 3분기 이미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상한인 5원을 넘겼기에 4분기는 올릴 수 없지만, 제도를 바꾸더라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전력도매가격(SMP)까지 급등해 한전으로선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시장에 싸게 제공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분기 때 제도를 이미 바꿨기에 또 수정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재차 단행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하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이다.

만약 산업부 안대로 kWh당 9.9원을 올리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민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10월이 물가 위기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산업부에 전달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10월이 물가 정점이니 천천히(인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해서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힘들 때”라며 “얼마나 심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반전을 뒤편고 있는데 체력을 다 소진하는 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10월부터 적용해야 하기에 늦어도 이번 주중엔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이르면 28일 조정안을 전달해 한전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무보, 美 수출입은행과 맞손...양국 기업 금융지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재편에 맞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뜻을 모았다. 양측은 한미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무보는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에 협력하고 신산업과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최근 한미 경제협력력이 강화하는 만큼, 양측이 힘을 모아 양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자 마련됐다. 한미 대표 정책 금융기관끼리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 통신사업자가 남미에 통신 설비를 남미에 통신 설비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설비의 30%를 한국 기업에 조달한다면 무보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지원 금액 중 30%를 재보험으로 분담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됐다. 무보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 활력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등 여러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금융지원 수단을 다

양화하고 유연한 위험 부담 체계를 만들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시장 지원 역량을 한층 확장시켜 더욱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에 이바지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출길을 넓혀 나갈 긍정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채권값 더 떨어진다” 풋옵션 러시... “73년來 최악의 버블”

중앙은행 공격적 금리인상에
국채·회사채 가격 하락세 가속
BOA “1949년 이래 최악의 해”
글로벌 투자자들 “자산 보호”
343억달러 ‘풋옵션’ 사들여



글로벌 채권시장의 붕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투자전략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채시장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유럽을 재건하던 1949년 이후 최악의 해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 투자수

익률 벤치마크인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종합지수는 이달 초 2021년 기록했던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1990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

영국 정부가 전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소득세와 인지세 인하,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 등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 국채 5년물 금리는 50bp(bp=0.01% 포인트) 상승한 4.06%로 14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폭은 최소 1992년 이후 가장 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2거래일 연속 올라 1976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주 24.8bp 올라 주간 기준으로 4월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10년물 금리는 전날 최대 3.82%까지 치솟으면서 12년 만의 최고치

를 기록했다.

날로 커지는 채권시장의 손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경제를 지탱하고자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을 당시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에 따른 경기침체에 예민해진 상태가 되면서 주식에서 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이 휘청거리고 있다.

피터 브룩바 블리클리자산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결론적으로 중앙은행들의 모든 금리 억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선진국 채권도 마치 신흥시장 채권처럼 거래되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 버블인 국채의 수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연준은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

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 4.25~4.50%에 이를 전망이다.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채권시장의 손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30일 발표되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6%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준은 물가 판단 지표로서 PCE 가격지수를 중시한다.

한편 전 세계 투자자들은 최근 시장의 혼란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퉈 풋옵션을 매입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풋옵션 매입액이 23일 기준 최근 4주간 343억 달러(약 49조 원)로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초 이후 지금까지 평균의 네 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찌 “쓰던 것도 팔겠다” vs 샤넬 “명품 고객에 피해” 럭셔리 업계 ‘중고 판매’ 사분오열

전 세계 중고 명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 시장을 두고 럭셔리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한쪽에선 중고 명품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선 신상품 판매 저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중고 명품 판매는 2017년 대비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상품 판매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중고 명품 판매는 향후 5년간 매년 약 15%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신상품 전망치의 두 배 수준이다.

중고 명품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샤넬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급격한 가격 인상에 일부 구매자들이 저렴한 중고를 찾기 시작한 영향이다.

세실리아 데 파노 패션 컨설턴트는 “현재 명품 가격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이에 과거 신상품만 구매하던 부유한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중고 명품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 시장이 많이 성장해서 양질의 중고품을 찾기도 더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 의견이 분

분하다. 구찌와 버버리, 스텔라 매카트니 등은 기회로 삼고 중고 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때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다시 사들인 다음 직접 되팔거나 온라인 중고 쇼핑몰에 보내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고 명품 판매 플랫폼 베스티에르렉티브에선 신상품 기준 2000달러(약 285만 원)짜리 구찌 핸드백이 250달러에 등장하기도 했다.

반면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 등은 중고판매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고 시장의 성장이 신상품 판매를 잠식하거나 자신들의 가격 결정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악셀 뒤마 에르메스 최고경영자(CEO)는 7월 실적발표 당시 중고 시장의 부상에 관한 질문을 받아 “에르메스가 장려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매장을 찾는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품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만큼 기업들이 추후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WSJ는 “일부 고급 패션 거물들이 중고품 시장을 기피하면서 업계가 분열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히잡 의문사’ 밝혀라... 항의시위 확산

그리스 아테네에서 24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히잡 미착용 여성의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중에 이란 출신 난민 여성이 석발하고 있다. 이란에서 22세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에 구금 중인 지난 16일 숨지면서 이란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숨졌다. 그러나 이날도 현지 8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아테네/AFP연합뉴스

유럽 가스값, 美 7배... “오일쇼크 때보다 흑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비용이 폭등하면서 유럽에서 정부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반발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유럽이 197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더 흑독한 겨울을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와 ICE 에너지지수를 인용해 올해 유럽 내 가스 비용이 미국에서의 비용보다 7배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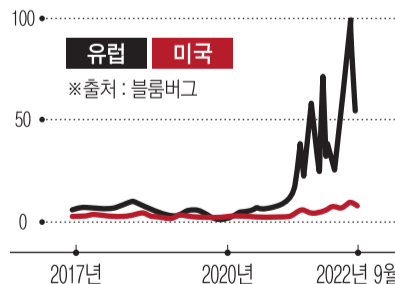
문제는 치솟는 가스 비용이 이미 유럽 각국서 경제적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46% 폭등했다. 물가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역흑자도 감소했다.

독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코베스트로는 최근 유럽 대신 아시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에너지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독일과 동유럽에서 납부부 생산거점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당국이 파산

獨, 가스기업 국유화에 반발
佛 기업, 고비용에 생산거절
“울겨울, 배급제 처지 될 수도”

유럽·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단위 : 100만 BTU당 달러)



직접인 독일 최대 가스 판매업체 유니퍼를 국유화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것에도 불만을 품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 프랑스 대표 유리제조사인 듀라렉스는 주문이 늘고 매출도 많아졌지만, 현 가격으로 계속 생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향후 5개월간 생산을 보류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 BFM TV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진정시키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은 ‘미친 가격’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특별한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독일과 영국, 체코 등에서 시민이 전기요금 인상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높아진 에너지 요금은 사회의 화약고”라며 현 상황을 경계했다.

유럽 내에서 균열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유럽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인 노르웨이가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이웃 국가들이 일제히 비난했다.

타티아나 미트로바 컬럼비아대 세계 에너지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울겨울 유일한 해결책은 수요 측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스 배급제를 피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은 서로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럽 상황은 오일쇼크에 휩싸였던 1970년대보다 더 나쁘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기업 ‘대만 리스크 경고음’ 16년 만에 최고

SEC 제출 보고서 ‘위험요인’ 언급 ↑

미국 기업 경영진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주요 공급국인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인 ‘10K’에서 대만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한 사례가 지난 12개월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0K 보고서가 가장 많이 제출되는 3월에는 무려 116개 기업이 비즈니스 위험 요소로 ‘대만’을 언급했다. 또 이달 들어 대만이 언급된 수 ‘12개월 이동평균’이 22.42건으로 적어도 16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FT는 분석했다.

기술업체들이 대만 이슈를 우려하는 가운데 그중 반도체 산업의 불안이 두드러졌다.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위험한 지

정학적 화약고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만일 중국과의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미국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전기차동차, 첨단 무기, 심지어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헬스케어업종이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대만 이슈를 우려하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직접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대만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 수석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사물인터넷(IoT)과 데이터센터, 전자차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반도체에 의존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들에 병목현상이 일어 나게 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22 Seoul Smart City Leaders Forum

2022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

디지털 소외를 넘어 연결시대 META, 그리고 서울 2022. 9. 27. (화) DDP 컨퍼런스홀

일정	프로그램	연사
----	------	----

● 디지털 서울 서밋		사회 박정숙 WeGO 사무총장
10:00-12:00	개회사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 1부시장 민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축사	아이너 엔센 주한 덴마크 대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기조연설	필라 코네사 Antevarti 대표 양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 부사장
	서울시 정책 사례발표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디지털 서울 정책토론	기조 연설자, 디지털정책관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 리더스포럼		사회 임규건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13:00-17:00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도시의 메타버스 변신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드 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튼시장 앤드류 콕번 영국 Connected Place Catapult 혁신 총괄 콜린 로우 싱가포르 국토청 대표
	메타 라이프 시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김범주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인숙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대표 유태웅 넷튠 대표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메타 챔피언 미래형 메타버스 인재들의 정책 솔루션 (We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ed Millennials S:Mile MECA Citipedia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2022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 공식 홈페이지(<https://forum.seoul.go.kr/ssc2022>)와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채무조정, 27일부터 사전신청

내달 4일 새출발기금 출범

담보 10억·무담보 5억원 한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창구는 10월 4일부터
년7% 사업자대출→저금리 대환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본인확인 ※ 출처: 금융감독원

코로나19 피해여부 및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여부 확인(1~2일 소요)

법인사업자 → 부실 우려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 운영시간

	플랫폼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창구	콜센터
오픈 시점		9월 27일(화) 09:30	10월 4일(화) 09:00	9월 27일(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한다. 또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 대출 특성상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제외된다.

조정하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고의적·반복적인 신청사례를 제한하고자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일부터 4일

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사전신청은 출착제로 운영돼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

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상환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

환하는 구조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30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월 3일과 10일은 공휴일로,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곧 이사 날도 다가오는데... 전세금 잘 돌려 받을 수 있겠지?”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우리 분양대금은 안전하겠지? 입주 때까지 별일 없어야 하는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

대한민국 주저 고민

HUG가 해결합니다

자영업 만기연장·상환유예 10월 시행

코로나 대출 연착륙 유도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이달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6개월 단위의 취약계층 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등의 검토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융 취약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해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6개월씩 일괄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을 기해 재연장 없이 지원을 종료하고 금융권 자율의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송영록 기자 syr@

<기업 PR>

전기차 오너라면 ‘삼성 iD EV카드’

전기차 충전 최대 70% 할인

삼성카드사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70% 할인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제공하는 ‘삼성 iD EV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 iD EV 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요금 50% 결제일 할인이 월 최대 2만 원까지 제공된다. 전월 이용금액이 60만 원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요금 70% 결제일 할인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환경부, 테슬라 슈퍼차저, 한국전력 등 다양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제공된다.

자동차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시, 주차장·하이패스·대리운전 이용 시 10% 결제일 할인이 통합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된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



차보험을 3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3만 원을 할인해준다.

‘삼성 iD EV 카드’로 배달 앱을 이용하면 10%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 원까지, 스트리밍 정기 결제 시에는 20% 결제일 할인을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한다.

‘삼성 iD EV 카드’는 페플라ست릭을 재활용해 만든 디사이클링-PVC를 50% 이상 사용카드 플레이트를 제작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및 해외겸용(마스터) 모두 1만5000원이며, 연간 63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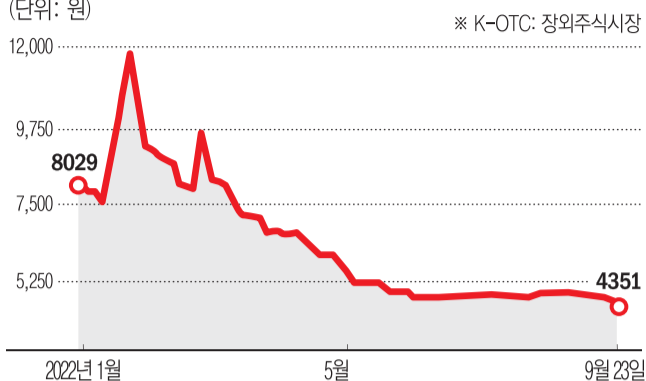
〈올해 시가총액〉

반토막 난 장외주식시장... 상장 앞둔 컬리·케뱅 '어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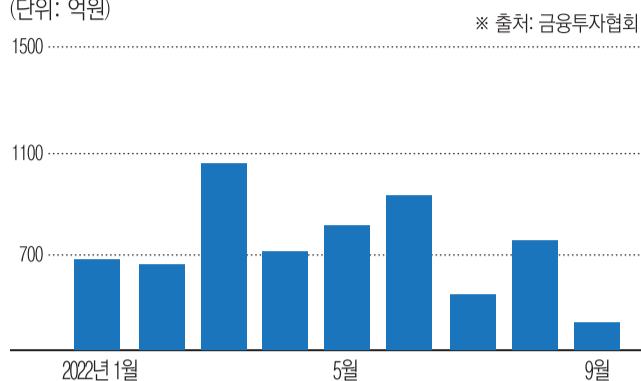
장외주식시장도 찬바람

올들어 시총 40.6% 뚝 18.7兆
가중주가평균 8029원→4351원
컬리 가치 62.5% 쪼그라들어
FI 손해 고려 IPO 연기 전망도
금리인상기 '시장경직' 불가피

K-OTC 가중주가평균



장외주식시장 거래대금



복합위기에 장외주식시장도 손을 들었다. 올해 들어서만 시가총액(시총)이 12조 원 넘게 증발하는 등 2021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가면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시총은 23일 기준 18조7136억 원으로, 이는 올해 초(31조4934억 원)보다 40.57% 줄어든 규모다. 19일 들어 올해 처음 19조 원 밑으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시총은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K-OTC에서 증가 대신 쓰는 기준 가격인 가

중주가평균은 올해 초 8029원에서 4351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올해 초부터 가격이 형성된 7개 종목의 평균 주가 하락률은 36.36%였다. 코스피(-23.75%)보다 12.61%포인트(P) 낮은 수치다. 종목별로 보면 두나무가 49만4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가장 큰 폭(-66.39%)으로 떨어졌으며, 비바리퍼블리카(-63.04%), 케이뱅크(-48.34%), 야놀자(-44.54%)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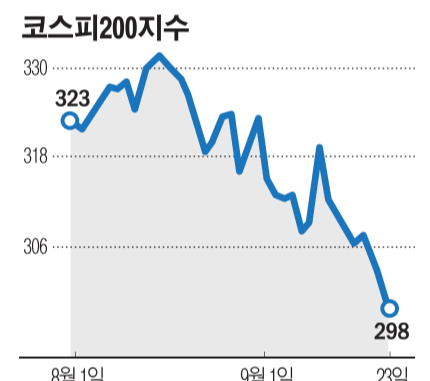
거래대금도 소폭 감소하는 모양새다. 23일 거래대금은 31억 원으로 올해 평균(36억 원)보다 5억 원, 지난해 평균(56억 원)보다는 24억 원 줄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외 시장에서 손을 점차 떼는 모양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매매 대금 중 1%대 후반대의 비율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0%대로 주저앉았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매매대금 31억 원 중 개인이 30억 원이었으며 기관은 0억 원대로 0%를 기록했다. 시장이 얼어붙자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장외주식시장에서 올해 IPO 대어로 꼽히는 컬리의 시총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컬리는 엔케어 테크파트너스(PE)는 25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유치하면서 4조 원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시총은 이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탓에 컬리의 IPO가 해를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가 자신의 손해를 고려해 IPO에 반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FI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IPO를 통해 투자금 일부를 건지는 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계에서는 KT와 케이뱅크 등이 7조 원 이상의 가치를 원하고 있지만, 장외시장에선 4조 원이기 때문이다. 최근 1년 동안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급락한 것도 케이뱅크의 기업 가치 평가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케이뱅크 가치를 산정할 때 쓰일 피어 그룹에 카카오뱅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최근 카카오뱅크가 연고점 대비 주가가 65% 빠진 이유에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가정사실화된 만큼 장외주식시장의 찬바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개별로 평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기업 밸류에이션상 할인율과 연관돼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도 "실적 성장 자체가 뒷받침되면 할인율 부담을 상쇄한 기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삼전·하이닉스·네이버 ELS '원금손실' 위험

한투 19개·하나證 4개 등 하락장 속 ELS 녹인 발생



글로벌 증시가 연일 저점을 낮추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손실 공포가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NVIDIA),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를 기초지수로 연계한 상품들에서 녹인 배리어(원금손실)에 도달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가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녹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LS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가 발행 당시 정한 수치 내로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투자자는 계약한 수익률로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수가 녹인 배리어를 터치한 경우 투자자들은 만기까지 ELS를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하락장에서는 만기가 돼도 원금손실 우려가 크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9월 들어 NVIDIA 보통주(1개)와 NAVER 보통주(18개) 관련 상품 등 총 19개의 ELS가 원금손실 위

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트루 ELS 14495회는 기초지수 중 하나인 네이버가 만기 시 수익상환조건인 최초 기준가격의 52%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녹인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네이버는 종가 20만6500원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9월 들어 4개의 ELS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EL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을 기초지수로 삼은 상품들이다. 하나증권의 ELS 13360회는 SK하이닉스가 만기 시 수익상환조건인 최초 기준가격의 68%를 하회하면서 녹인이 발

생했다. 발행일인 지난해 4월 30일 SK하이닉스는 종가 12만8000원이었으나 지난 22일 종가 8만6000원까지 하락했다. 신한금융투자도 9월 NVIDIA,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 3개의 ELS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가 올해 4월 5일 발행한 NVIDIA 주가 연계 상품은 지난 15일 기준 종가가 최고 기준가격 대비 50% 미만으로 하락해 녹인 사유(원금손실조건)가 발생했다. 국내외 주요 지수 및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ELS 발행 규모가 가장 큰 S&P500은 올해 들어 23% 하락했다. 발행규모가 두 번째로 큰 유로 스톡스50(EURO STOXX 50)도 올해만 22.7%가량 내렸다. 세 번째 규모인 코스피200도 올해 24.7% 하락했다. 당분간 ELS 시장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주요 지표들의 분위기는 금융위기 직전 회복성 매도가 나오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며 "최근 S&P500 변동성지수(VIX)가 급등하지 않는 걸 보면 회복성 매도 물량이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안전자산 머니무브에 '킹달러' 지속 환율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

'강달러 시대' 달러 투자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세 번째 사이언트 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원) 이후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달러화 초강세 현상은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당분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2일 111대를 돌파했다. 투자자 심리도 안전자산인 달러로 향하고 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달러 초강세 흐름이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나눠 매수하는 방법으로 달러 자산을 늘려가라고 조언한다. 가장 기초적인 달러 투자법에는 은행 외화 예금이 있다. 이는 은행에서 달러 예금

에 가입한 뒤 원화를 입금하면 달러로 환전된 채 적립되는 방식으로 예금 이자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은행 외화 예금 외에도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달러 RP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미국 국채 등을 산 뒤 투자 수익인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 투자자라면 달러 상장지수펀드(ETF)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달러 ETF는 달러 가치에 직접 연동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달러 가치가 높아진 만큼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원화 매수 기회라고도 조언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1400원대로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라왔고 정부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데다, 결국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평균치로 회귀한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감안하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원화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부여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연준 3회 연속 사이언트스텝 영향 금주 코스피 '흐림'

주간 증시 전망

NH證 "2280~2400P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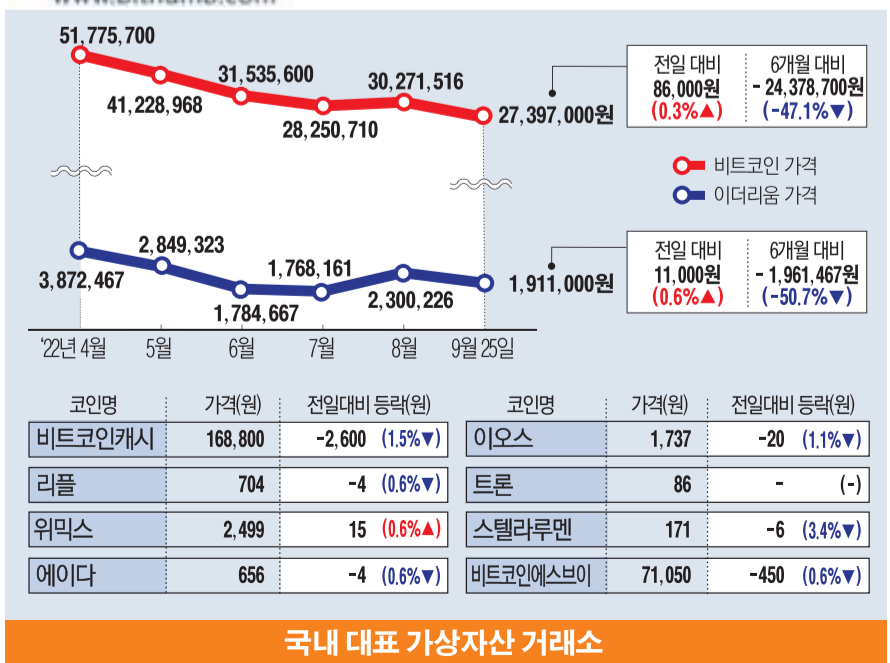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사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의 여파로 이번 주(9월 26~30일) 우리 증시도 흐림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단기에 낙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가 2280포인트(P)에서 2400P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상승 요인으로 아이폰 판매 호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다. 하락 요인으로는 미 연

준의 긴축 우려와 미·중 패권 경쟁 관련 리스크를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7월 까지 비교적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8월에는 전월 대비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구재 주문이 얼마나 견조하게 버티는지 미국 경기 둔화 속도를 엿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이달 말 발표될 주요 지수로는 미국 주택 가격 지표다. 또 이번 주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집4가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지배적 위치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직접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한중 관계 악화 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집4 추진 상황

과 한중 관계 경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당분간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 모멘텀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이폰14의 미국, 중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과 관련해 애플향 핸드셋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테마 관점에서는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테슬라 AI 데이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범용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이 처음 공개된다"며 "사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일론 머스크가 과거 자신을 둘러싼 회의론이 틀렸음을 수차례 입증해왔다는 점을 들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빗썸 지수 (2022년 9월 25일 17:00, KST)



<2025년까지>

포스코인터, 호주 천연가스 생산량 3배 늘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5년까지 호주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3배로 늘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에너지사업 파트너사인 헥스에너지와 함께 자회사인 세넥스에너지에 3억 호주달러(약 2800억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넥스에너지는 지난 4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수한 호주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전 세계적 인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석탄발전의 가스발

‘세넥스에너지’ 가스 증산 위해 파트너사와 2800억 공동 투자 “증산 천연가스 일부 국내 도입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여”

전 전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스전 추가 개발의 적기라고 판단에 투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투자를 통해

세넥스에너지의 연간 가스 생산 규모를 2025년 4분기까지 현재 생산량 대비 3배인 60PJ(페타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60페타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약 12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증산하는 것은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세넥스에너지는 2024년까지 생산 중인 아틀라스와 로마노스 가스전의 가스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생산 시추량을

늘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존 가스전에 대한 후속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유 중인 아르테미스와 로키바 광구의 평가 시추와 추가 가스전 매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증산한 천연가스 생산량 일부는 LNG로 국내에 도입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2025년 최대 4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 물량 확대가 예정되었다.

세넥스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박차를 가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소유 발전사인 CS에너지와 협업해 올 4분기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 데모플랜트(시험 설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이 끝나는 내년 4분기부터 그린수소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천연가스 증산을 통해 수익성 향상과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서울 하늘 수놓은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LG전자가 냉장고 신제품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출시를 기념해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상공에서 드론 쇼를 펼쳤다. 행사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무드업 인 시티'를 주제로 물리적인 패널 교체 없이 빛으로 냉장고의 컬러와 공간 분위기를 바꾸는 제품의 특징을 드론 쇼에 담았다. 밤하늘로 날아오른 드론 1000대는 무드업 냉장고, 서울의 전경 등을 그려냈다. 사진제공 LG전자

현대차 아이오닉5·EV6 ‘가속페달’ 올해 글로벌 누적판매 10만대 돌파

중국 제외하면 세계 4·5위 최다판매는 ‘테슬라 모델Y’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사진)와 EV6가 올해 글로벌 누적 판매 1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 내수시장에서만 팔리는 중국 전기차를 제외하면 판매 순위가 각각 4, 5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5일 전기차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이 각각 6만985대, 4만8131대를 기록했다. 두 차종의 판매 합계는 10만 9116대다.

클린테크니카는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합한 ‘플러그인 자동차’로 전기차 판매량을 집계해 발표한다.

판매순위로는 아이오닉 5는 13위, EV6는 18위지만 사실상 중국 내에서만 팔리는 중국 현지 브랜드 모델들을 제외하면 4위와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같은 기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은 34만4928대의 테슬라 모델Y였고, 테슬라 모델3

(23만6518대)과 폭스바겐 ID.4(8만 2632대)가 2~3위를 차지했다.

아이오닉5와 EV6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가 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시켜 내놓은 첫 전용 전기차다. 두 차종은 지난해 출시되자마자 각각 ‘2022 세계 올해의 차’, ‘2022 유럽 올해의 차’를 휩쓸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퍼스트 무버’ 전략에 따라 작년부터 전동화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라인업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아이오닉5와 GV60에 이어 최근 아이오닉6을 출시했다. 기아는 EV6에 더해 내년 4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된 아이오닉5와 EV6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빠른 공급을 통해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핵심노선 드디어 열린다”... LCC, 손님맞이 분주

일, 내달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 대만은 이달 29일...홍콩도 격리 폐지 업계, 노선 늘리고 ‘고객유치’ 총력전

코로나19로 인해 굳게 닫혔던 일본 하늘길과 아시아 국가들의 방역 규제가 잇달아 풀리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1일부터 입국자 하루 5만 명 상한선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국경 폐쇄 조치가 내려진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일본 규제 완화만 기다리던 LCC 업계는 노선을 확대하며 고객 유치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 제주항공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노선은 코로나 이전까지 LCC 업계의 핵심 노선이었다. 제주항공만 봐도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하늘길에서 운항편수와 수송객수 모두 국적 LCC 중 1위를 차지했다.

홍콩도 2년 반 넘게 유지해오던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규정을 26일부터 폐지

한다. 또 입국자에게 요구해오던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 규정도 폐지하고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만은 29일부터 한국, 일본 등 무비자 국가에 대한 입국을 재개한다. 대만 보건당국은 29일부터 매주 입국자 수를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입국 시 무증상자를 상대로 시행하던 PCR 검사를 취소하고 신속항원검사 4회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은 한국 항공사들이 가장 기다리던 노선이었으며, 벌써 예매율이 급증하고 있어 국제선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완화 기점으로 LCC들엔 재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고맙다, 께북”... 삼성, 27년 연속 국내 PC 1위

올 상반기 점유율 26.9%

삼성전자 PC가 국내 시장에서 27년간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장조사업체 한국IDC에 따르면 삼성 PC는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7년 6개월 동안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합친 국내 PC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년간 삼성 PC의 점유율은 2019년 26.3%, 2020년 26.9%, 2021년 27.8%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26.9%를 기록했다.

삼성엔 “점유율이 상승 추세를 보인 데는 2019년 8월 처음 출시한 노트북 ‘갤럭시 북’ 시리즈의 흥행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초 내놓은 프리미엄 초경량

노트북 시리즈 ‘갤럭시 북2 프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시리즈는 외장 그래픽 카드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 두께가 11mm대로 얇다.

삼성엔 갤럭시 북2 프로 시리즈가 가볍고 얇은 디자인과 더불어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기반을 둔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고객 서비스가 편리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청소기 폐배터리 반납하면 새 것 할인해 드려요”

LG전자 ‘배터리턴’ 캠페인

LG전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과 A9S에 사용했던 폐배터리를 수거해 새 배터리를 살 때 혜택을 주는 ‘배터리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드제로 A9과 A9S 사용 고객이 LG전자 공식 홈페이지나 LG 씽큐(LG ThinQ) 앱에서 회원가입 후 배터리턴 이벤트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시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1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폐배터리는 환경부의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폐가전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LG베스트샵 및 타 가전양판점 등에 폐가전 수거함이 마련되었다.



LG전자는 지난 5월에도 2달간 무선청소기와 로봇청소기의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LG전자는 자원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가전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과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2만 70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실적을 거둔 것에 이어 2030년까지 누적 60만 톤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삼성, ARM 단독 인수 희박”... 인텔·퀄컴·SK와 손잡나

이재용, 다음달 손정의와 회동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달 글로벌 팹리스(설계전문)기업 ARM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의 인수·합병(M&A) 관측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손 회장은 내달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 산하 ARM 간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 대변인은 “(손 회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삼성과 ARM 간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이 부회장 역시 ARM 인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다음 달에 손정의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것”이라며 “그때 무슨 제안을 하실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두 총수의 만남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 참여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RM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현금성 자산 125조 충분하지만

독과점 규제·경쟁사 견제 우려

엔비디아, ARM 인수 울초 무산
현실적으로 일부 지분만 사거나

공동 인수해 반도체 설계 역량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유력한 M&A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ARM을 인수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25조 원임을 고려하면 ARM을 단독으로 인수할 재무적 역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독과점을 우려하는 각국 규제 당국의 인수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고, 반도체 업계 경쟁사들의 견제도 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ARM을 2020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

(약 56조 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영국을 비롯한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올해 초 무산된 바 있다. ARM의 높은 ‘몸값’도 부담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ARM의 예상 인수는 적게는 5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에 달한다. 소프트뱅크가 ARM의 몸값을 낮추더라도 최소 50조 원 이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이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으로 삼성전자가 ARM의 소수지분을 취득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거론되는 기업은 인텔이나 퀄컴은 혹은 과거 ARM 인수설이 있었던 SK하이닉스 등이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내달 이 부회장뿐 아니라 SK하이닉스 경영진과도 접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ARM은 한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대기업 임금 인상률, 中企의 두 배

대기업 9.8%... 中企는 4.8%
경총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

상반기 임금총액 인상률이 업종과 규모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 인상률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384.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올랐다. 이는 작년 인상률보다 1.9%p 높아진 것이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정액급여 인상률은 4.1%로 작년 인상률보다 1.0%포인트(p) 올랐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19.1%로 매우 가파르게 인상됐다.

임금총액 인상률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8%로 크게 올랐다. 반면 300인 미만은 4.8%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특별급여 인상률의 규모별 격차(최소 4.9%~최대 26.2%)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액급여의 규모별 인상률(최소 3.5%~최대 4.9%)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8.5%),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업(1.6%)으로, 두 업종 간 인상률 격차는 6.9%p였다. 이다솜 기자 citizen@



LG 클로이 서버봇이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식당·카페·병원·박물관... 일상에 스미는 LG클로이

LG전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 전략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호텔, 병원, 레지던스, F&B(식음료) 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였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실생활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과의 거리감도 좁히고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건물 내 주요 시설물 안내와 함께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를 해준다. 시설 관련 정보를 방문객에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한다. 도슨트 기능도 탑재돼 박물관, 전시관 등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콘텐츠를 소개하며 투어를 진행할 수 있다. 심야 시간에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등 보안 업무도 수행한다.

LG전자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 ‘LG 클로이 서버봇’ 2종(선반형, 서랍형)도 출시했다. LG 클로이 서버봇(서랍형)은 3칸의 서랍에 최대 15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다. 배송 중 단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잠금 장치가 돼 있다. 관리자가 로봇 관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용 이력, 배송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LG 클로이 서버봇(선반형)은 선반 3개를 끼

우면 최대 4개의 칸에 20kg까지 음식을 나눠 담을 수 있다.

LG전자는 특정 공간의 위생을 위해 비대면으로 방역 작업을 하는 ‘LG 클로이 살균봇’을 선보였다. 로봇의 높이는 160cm 정도이고 몸체의 좌우 측면에는 UV-C 램프가 있다. 로봇은 실내 공간을 누비며 사람의 손이 닿는 물건들의 표면을 살균한다.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LG 클로이 바리스타봇’도 있다.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이 만드는 커피 맛이 ‘브루잉 마스터’가 만드는 수준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한국커피협회로부터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받았다. LG전자는 원두 종류, 분쇄 정도, 물 온도·양, 추출 시간 등 핸드드립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LG 클로이 바리스타봇’에 적용했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에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공급했다. 서울 강동성심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는 LG 클로이 서버봇을, 용인 소재 병원에는 LG 클로이 UV-C봇을 각각 공급하며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 고객 경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과에 LG 클로이 서버봇 공급을 시작으로 이원 의료재단, 국립암센터, 다수의 개인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 LG 클로이 로봇을 지속 공급해 왔다. 장효진 기자 js62@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롯데칠성음료

상큼함 MAX 칼로리 X

TAMS ZERO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을바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송戰... 중기부, 로펌 앞세워 방어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중기부 “보전금 등 이미 보상
위헌 가능성 낮아” 적극 맞대응
온도차 커 치열한 공방 예상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 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 최대한 맞대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법인 율촌을 코로나 손실보상제도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및 협상이 마무리되면 율촌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0여 건의 소송에서 정부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다.
율촌이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1건의 핵심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여기에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2021년 7월 7일 이후로 규정해놓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충언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줄 것을 요청했

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일은 개정법 공포일인 2021년 7월 7일이다.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2020년 8월-2021년 7월 6일)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이같은 제청을 받아들이며 소상공인들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소상공인법 공포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 그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같은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위와 같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부칙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여지가 있거나 실제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해도 이 같은 차이가 정당화된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산 초기 사회 전반적인 공포와 불확실성이 현재와 비교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실질적 사회적 강도나 파장은 더 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만큼 향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다. 과거 개별 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 역시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상공인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에 대해선 이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워낙 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상반기 역대급 실적 넥슨 인재채용 ‘넥토리얼’ 확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넥슨이 하반기 대규모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 소식을 알렸다. 최근 주요 IT·게임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 자릿수 수준의 대규모 인턴 채용 계획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넥토리얼은 교육과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표 맞춤형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총 6개월간 진행된다.
넥토리얼은 인턴십 6개월간 진행 후 채용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한다. 인턴 근무 기간 내 수료결과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를 인원제한 없이 정규직 전환 및 입사가 가능하다. 지난해 첫 넥토리얼 인턴십의 경우 대상자의 91%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높은 전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넥토리얼 인턴십을 통해 입사한 넥슨 신입 직원들은 특히 이 기간 동안 넥슨의 실제 기업문화와 근무 환경, 업무를 충분히 경험했다. 그 결과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보는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입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넥토리얼에서는 지난해 세 자릿수

의 인원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역시 채용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넥슨은 신입 채용 뿐만 아니라 메이플스토리 게임테크, 신규개발본부, 라이브본부 등 다양한 부문별 집중 채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인재 영입과 육성에 공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인재 투자의 배경으로는 올해 넥슨이 기록 중인 역대급 성과가 손꼽힌다. 넥슨은 올해 초부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히트2’ 등 대형 신작 모바일게임들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등 주요 라이브게임들도 유저 친화적 운영과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높은 성과와 긍정적인 유저 피드백을 기록하고 있다. 넥슨은 지속적인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이후 출시를 앞둔 신규 게임 개발 및 라이브게임 서비스 고도화에 가속도를 내고,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창렬 넥슨 인사실장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넥슨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넥토리얼 인턴십 채용에 넥슨의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함께 하실 인재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서비스 ‘엑스칼리버’를 공개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SKT

“반려견 아픈 곳 AI가 찾아”... SKT ‘엑스칼리버’ 서비스

엑스레이, 클라우드 등록하면 AI가 분석해 수의사에게 제공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X-ray) 사진을 분석해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AI 기반 수의(동물)영상진단 보조서비스’가 국내에 상용화됐다.
SK텔레콤은 서울수의사사회가 주관하는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에서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서비스 ‘엑스칼리버(X-Caliber)’를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엑스칼리버’는 병원에서 촬영한 반려견의 근골격 및 흉부 등 엑스레이 사진을 클라

우드에 등록하면, AI가 비정상 소견 여부와 위치정보 등 분석결과를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웹기반 서비스다. 소요 시간은 약 30초(인터넷속도 100Mbps 기준) 내외다. AI기반 영상 진단보조서비스가 보급되면 전국 약 4000여 개의 동물병원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엑스칼리버’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저장과 조회를 하기 때문에 병원내 별도의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웹 서비스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업그레이드와 관리도 쉽다. 또 수의사들은 연동된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AI가 제시하는 영상진단 판독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SKT는 동물 영상진단 AI플랫폼 ‘엑스

칼리버’에 데이터셋 개발부터 AI 모델 개발, 서비스 적용까지 그동안 쌓은 R&D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 특히 ‘엑스칼리버’에 적용된 자사의 AI 서비스 및 학습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해 향후 서비스 품질 업데이트와 추가 기능 배포도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하민용 SK텔레콤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SKT가 가진 AI기술력과 5개 국립 수의대학의 고품질 데이터가 합쳐져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시스템이 탄생하게 됐다”며 “SKT는 질병의 진단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나은 펫 케어 서비스 제공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中企 대표 400명 한자리에... “미래 100년 설계”

‘리더스포럼’ 내일 제주서 개최
전국 중소기업 대표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7-30일 3박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 명이 참가하는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5회를 맞는다. 올해 리더스포럼의 주제는 ‘60년의 발걸

음, 100년의 희망’이다.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지는 의미를 담았다.
포럼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연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강연 △법륜스님의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강연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의 ‘메타버스에서 중소기업 성공의 기회’ 강연 △김수미 배우와 신달자 시인, 오한진 을지대학교 병원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지역 특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도 진행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7년부터 시작한 리더스포럼은 규제개혁,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국내 최고의 명품포럼으로 성장해왔다”며 “올해 포럼은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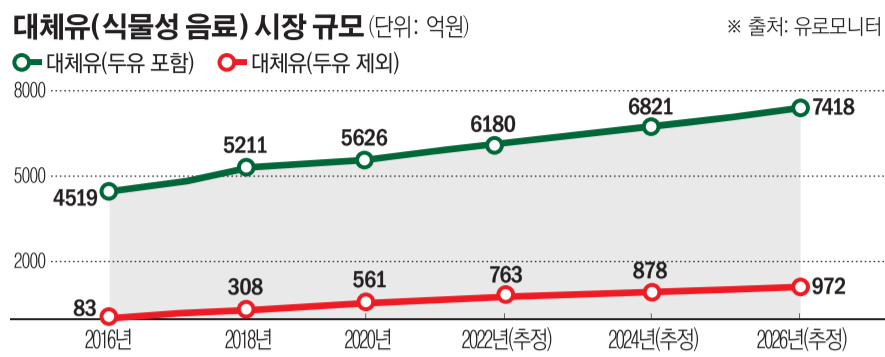
흰우유 대신 속편한 아몬드·귀리 우유... '식물성 대체유' 뜬다

국내 대체유 시장 올 6180억 전망
원웃값 오르며 경쟁력 더 높아져
매일, 비건인증 '어메이징 오트'
남양 '아몬드데이' 등 출시 잇따라

5211억 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6180억 원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두 유를 제외한 대체유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시장 규모가 2016년 83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686억 원을 기록했다. 오는 2026년 전망치는 972억 원에 달한다.

대체유는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거나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기호에 맞춘 음료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원유(우유 원료) 가격 인상으로 우유 가격이 오르면 대체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다음달 중 원유 가격 상승폭이 리터당 47~58원으로 결정되면, 흰우유 가격은 1리터당 500원 안팎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몬드유는 온라인몰에서 리터당 3000원 내외, 흰우유는 2500~3000원 선에 판매된다.

가파른 시장 성장세에 식품업체들은 식물성 대체유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은 매일유업이



다. 2015년부터 세계 최대 아몬드 전문 기업 블루다리아몬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몬드 음료 아몬드브리즈를 수입·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100%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아몬드로 만든 식물성 음료다. 이어 매일유업은 자체 브랜드로 직접 제조·판매에도 나섰다. 지난해 9월 식물성 음료 한국비건인증원 인증을 받은 '어메이징 오트'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100% 정정 핀란드산 오트(귀리)만을 사용했다.

남양유업은 이달 21일 100% 캘리포니아산 리얼 아몬드를 담은 '아몬드데이'를 선보였다. 이 제품에는 부담없는 35kcal(칼로리)와 비타민E, 칼슘이 함유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기존 플랜트 밀크의 맛이 다소 밋밋한 데 반해, 아몬드데이는 최적의 로스팅 공법과 동결분쇄 공법으로 향과 풍미를 살렸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식물성 대체유' 전문 브랜드 '얼티브(ALTIVE)'로 플랜트 밀크 시장에 진출했다. 사내 벤처

프로그램 '이노백(INNO 100)'을 통해 MZ세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제품이다. 유제품의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얼티브 플랜트유'는 우유를 대체하는 식물성 고단백·고칼슘 음료로 유럽 비건 인증인 'V라벨'을 획득했다.

동원F&B도 지난해 12월 식물성 음료 '그린 덴마크' 2종(귀리·아몬드)으로 잠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신장률이 월 평균 60%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은 2020년부터 스웨덴 AB사에서 귀리 음료 '오틀리(OATLY)'를 수입해 판매 중이다. 오틀리는 스웨덴의 식품공학자 리커드 아스티 박사가 1993년 설립한 브랜드다.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래퍼 제이 지(Jay-Z),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불고기·명란젓·계란찜... 반찬가게 된 편의점

물가 상승에 집밥족 증가
CU 새 브랜드 '반찬한끼'
소포장 반찬 출시 잇따라



외식물가 상승에 집밥족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업계가 '반찬 가게'로 부상하고 있다. 소포장 반찬부터 한끼 식사를 겸할 수 있는 반찬 제품을 출시하며 1~2인 가구 공략에 나섰다.

25일 분지 취재 결과 주요 편의점의 반찬류 매출이 일제히 올랐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의 경우 올해 김치, 통조림, 밑반찬 등 반찬류 누적(1월 1일~9월 20일 기준) 매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8.1%다.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분기 19.3%, 3분기(7월 1일~9월 20일)에는 24.5% 늘었다. 이마트24의 경우 올해 6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반찬 간편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젊은 세대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의점 반찬 인기가 좋았다. 이마트24가 올해 반찬 상품 판매량을 상관별로 분석한 결과 독신주태가(36%), 일반주태가(32%), 오피스가(19%) 순으로

CU에서 선보인 반찬 전문 브랜드 '반찬한끼' 사진제공 BGF리테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 편의점의 판매 비율이 높았다.

편의점 업계는 집밥족 공략을 위해 앞다투어 소포장 반찬 제품을 내놓고 있다. CU는 반찬 전문 브랜드 '반찬한끼'를 선보였다. 첫 상품은 밑반찬으로 인기인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3종이다. 이 제품은 90g 소포장으로 1~2인 가구가 주 대상층이다. 다음달 계란찜, 멸치볶음, 마늘종볶음 등을 차례로 출시한다.

이마트24는 조리 과정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 간편식 상품을 확

대해, 1인 가구와 가족 단위 소비자를 공략한다. 한 세트당 반찬 가짓수를 3개씩으로 구성된 '노키친 3찬 세트'가 대표적이다. 이마트24는 반찬 대부분을 재료 준비 과정이 비교적 까다롭거나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기 어려운 것으로 구성했다.

이마트24는 지난 6월부터 '반찬한끼' 시리즈로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섰다. 반찬가게처럼 한 용기에 하나의 반찬을 담은 소용량 1인분이다. 매콤제육, 단짬불고기, 비엔나소시지에 이어 최근 '반찬한끼 치즈함박&파스타'를 내놨다. GS25에 따르면 반찬한끼 출시 초기 1개월과 비교해 최근 매출이 190% 가까이 뛰었다.

온라인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CU는 멤버십 앱 포켓CU의 메인화면에 HMR 전용관인 '간편한끼' 탭을 신설해 집밥 수요 잡기에 나섰다. 간편한끼는 인기 있는 유명 HMR 제조사들의 반찬, 밑키트, 국·탕·찌개류 상품을 엄선해 고객이 지정한 주소지로도 배송해준다. 윙스환 BGF리테일 MD는 "포켓CU에 HMR 전용관을 신설하는 등 식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북한리조트 제주신화월드 전경.

사진제공 제주신화월드

가을 호텔로 떠나는 '秋캉스'

롯데호텔 서울, 고궁산책 등 특전
제주신화월드, 세끼 해결 패키지

스테이의 프리미엄 침구세트를 제공한다.

올 여름 잦은 비와 태풍으로 미뤄던 여름 휴가를 대신해 가을 휴가를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는 10월 초 3일 연휴가 2주 연속 이어져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호텔 업계에서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앞세워 가을 여행객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호텔 서울과 워드는 낮값이 휴가객들이 고궁 산책을 즐기거나 가족, 연인, 친구들과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촬영 상품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롯데호텔 서울의 '머스트비 오트' : 샤이닝 서울(Must Be Autumn : Shining Seoul)은 페니슬라 라운지 앤 바에서 진행 중인 디저트 프로모션 '머스트비 샤인 머스켓' 이용 특전이 포함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오윤 작가가 디자인한 감각적인 플레이트와 테이블 매트 등을 함께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25일 신라스테이에 따르면 호캉스로 가을 휴가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신라스테이가 9~10월 예약률을 파악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

제주신화월드는 '놀고 먹고' 호캉스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신화월드의 F&B 매장 개수만 41개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해결해도 모든 레스토랑을 경험하려면 꼬박 2주가 필요하다. 제주신화월드 랜딩관, 신화관, 서머셋 등에 적용되는 '올 인 월드' 패키지는 '골드' 패키지와 동일한 구성에 중식이 제외된 '실버' 패키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신라스테이는 추석 연휴에 선보인 '은유어 스테이 시즌5' 패키지도 예약 증가에 한몫했다고 분석한다. 이 패키지는 매년 파격적인 이벤트를 내세운 가을 휴가 고객 대상 상품이다. 올해는 1등 당첨자 14명에게 전국 신라스테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항공권·렌터카·열차 티켓·숙박권이 포함된 신라스테이 VVIP프리패스와 신라

조남호 기자 spdran@

"할인에 공연 더해"... 깊어진 백화점 가을 정기세일

엔데믹 맞춰 고객 경험 극대화

재즈 공연'이 열린다. 영국 유명 화가 루이스 웨인 대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 '루이스 웨인 전시'도 있다.

내외 모피 브랜드와 맥케이지, 무스너클 등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백화점 업계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정기 가을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세일에는 3년 만에 찾아온 엔데믹에 맞춰 할인은 물론 공연, 전시, 파티, 웨딩 등 경험을 극대화한 행사가 마련됐다.

신세계백화점은 가을 정기세일과 함께 겨울시즌 상품도 앞당겨 준비했다. 13개 점포에서 총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대 50% 할인율로 상품을 준비했다. 마리끌레르, 데시데, 갤럭시 정장, 지이크 등 여성·남성패션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최대 30% 할인가에 선보인다. 닥스, 메트로 시티 등 인기 핸드백 브랜드도 최대 20% 할인한다. 2030 가을 등산객을 겨냥해 이탈리아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스카르파'의 팝업스토어와 함께 라이브 방송도 준비했다. 겨울 인기 상품도 가세한다. 강남점에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진도, 동우 등 국

롯데백화점은 정기세일에서 뷰티, 패션 행사를 비롯해 잠실 월드컵 잔디광장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스타일런' 마라톤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을 선보이고, 테마기획 전시와 함께 결혼 최대 성수기인 10월을 맞아 '웨딩 연계 행사'도 연다. 각 점포에서는 라페스타 기간 중 디저트 팝업, 백화점 방문 인증 이벤트와 전시 등 고객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롯데온도 '라페스타'를 테마로 전국 롯데백화점과 동시에 정기세일에 나선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백화점은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패션·잡화·스포츠·화장품 등 총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고객을 잡기 위해 재즈 공연·예술 전시 등 문화 콘텐츠 행사도 대거 선보인다. 주요 점포에서 '주말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ESG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맑은 하천과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요

에너지 소비를 줄인 주택을 지어 주거부담을 낮추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ESG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재초환 부담 줄일 것”... 꼭 막힌 ‘재건축 물꼬’ 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개요

-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조합이나 조합원이 얻는 주택가격 증가분을 뜻함.
- 현행 기준으로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금액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환수.

현황

전국 83개 단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통보

단지명	지역	면적	세대수	시공사
1	서울	1000	100	ABC
2	서울	1200	120	DEF
3	서울	1500	150	GHI
4	서울	1800	180	JKL
5	서울	2000	200	MNO
6	서울	2500	250	PQR
7	서울	3000	300	STU
8	서울	3500	350	VWX
9	서울	4000	400	YZA
10	서울	4500	450	BCD
11	서울	5000	500	EFG
12	서울	5500	550	HJK
13	서울	6000	600	LMN
14	서울	6500	650	OPQ
15	서울	7000	700	RST
16	서울	7500	750	UVW
17	서울	8000	800	XYZ
18	서울	8500	850	ABC
19	서울	9000	900	DEF
20	서울	9500	950	GHI
21	서울	10000	1000	JKL
22	서울	10500	1050	MNO
23	서울	11000	1100	PQR
24	서울	11500	1150	STU
25	서울	12000	1200	VWX
26	서울	12500	1250	YZA
27	서울	13000	1300	BCD
28	서울	13500	1350	EFG
29	서울	14000	1400	HJK
30	서울	14500	1450	LMN
31	서울	15000	1500	OPQ
32	서울	15500	1550	RST
33	서울	16000	1600	UVW
34	서울	16500	1650	XYZ
35	서울	17000	1700	ABC
36	서울	17500	1750	DEF
37	서울	18000	1800	GHI
38	서울	18500	1850	JKL
39	서울	19000	1900	MNO
40	서울	19500	1950	PQR
41	서울	20000	2000	STU
42	서울	20500	2050	VWX
43	서울	21000	2100	YZA
44	서울	21500	2150	BCD
45	서울	22000	2200	EFG
46	서울	22500	2250	HJK
47	서울	23000	2300	LMN
48	서울	23500	2350	OPQ
49	서울	24000	2400	RST
50	서울	24500	2450	UVW
51	서울	25000	2500	XYZ
52	서울	25500	2550	ABC
53	서울	26000	2600	DEF
54	서울	26500	2650	GHI
55	서울	27000	2700	JKL
56	서울	27500	2750	MNO
57	서울	28000	2800	PQR
58	서울	28500	2850	STU
59	서울	29000	2900	VWX
60	서울	29500	2950	YZA
61	서울	30000	3000	BCD
62	서울	30500	3050	EFG
63	서울	31000	3100	HJK
64	서울	31500	3150	LMN
65	서울	32000	3200	OPQ
66	서울	32500	3250	RST
67	서울	33000	3300	UVW
68	서울	33500	3350	XYZ
69	서울	34000	3400	ABC
70	서울	34500	3450	DEF
71	서울	35000	3500	GHI
72	서울	35500	3550	JKL
73	서울	36000	3600	MNO
74	서울	36500	3650	PQR
75	서울	37000	3700	STU
76	서울	37500	3750	VWX
77	서울	38000	3800	YZA
78	서울	38500	3850	BCD
79	서울	39000	3900	EFG
80	서울	39500	3950	HJK
81	서울	40000	4000	LMN
82	서울	40500	4050	OPQ
83	서울	41000	4100	RST

개편 예상안

- 1가구 1주택자 최대 50% 재초환 감면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 면제 기준: 현행 3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재초환 개편안’ 이번 주 중 발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 따라 부담금 감액·면제기준 상향 유력 “감면 수준 국회 논의 지켜봐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동안 막막했던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의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부담금 면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개편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재초환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재건축부담금으로도 불린다. 현행 기준으로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금액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재초환 개편안의 세부안은 공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발표된 정부 정책과 여당 발의안을 종합하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고, 재초환 면제 기준을 높여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재초환 법안을 개정해 현재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한다. 관련 개정안에는 현재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보유 기간 10년 이상,

거주 기간 5년 이상) 조합원 재건축부담금 50% 경감 △재건축초과이익 하한 금액 1억 원으로 상향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을 제외한 두 가지 완화안은 시행이 유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초 내놓은 법안 검토 보고서도 이같은 취지의 개편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과 개시 시점을 개정안처럼(조합설립인가일) 바꾸면 조합 인가 전까지 집값 상승분을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지난 22일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이익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누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문제는

시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재초환 개편안을 시행하면 서울 내 재건축 단지 사업도 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 내 주요 사업장은 예상보다 더 많은 재초환 부담금 때문에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은 지난 7월 가구당 7억7000만 원을 통보받아 층수 변경 등 설계 변경에 착수했다. 성동구 성수동 잠미아파트는 4억77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국토부 집계 기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재초환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전국 83개 단지에 달한다.

관건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느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지느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하므로 실제 감면 수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롯데 vs 대우, 한남2구역 맞대결... 조합원 잡을 조건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올 하반기 최대 재개발 사업인 만큼 이들 건설사들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와 유명 설계회사를 동원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한 수주전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시공사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 원(현금 40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 원)을 조합에 납부하고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로써 19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롯데건설과 2파전이 성립됐다.

이명화 한남2구역 조합장은 “현장 설명회 열기에 비해 소수만 응찰해 다소 아쉬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주 의지를 보

롯데건설 ‘르엘·대우건설 ‘써밋’ 하이엔드 브랜드 내세워 승부수 10월 29일 1차 현장설명회 이후 11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였던 건설사들이 응찰해 만족한다”며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한 달여 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뒤 10월 29일 1차 현장 설명회, 11월 5일 2차 현장 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이 순항할 경우

사설비	9486억 원	4월 9일	이명화 조합장 선출
사업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 일원	8월 3일	현장설명회
규모	11만5000㎡	8월 5일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
공급규모	1537가구 (임대 238가구 포함)	9월 23일	입찰 마감
		10월 29일	1차 합동설명회
		11월 5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뉴타운 내 핵심 입지로, 용산구 보광동 272-3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9486억 원에 달한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모두 기존 아파트 브랜드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하며 조합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로 승부수를 띄웠다. 르엘은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에만 적용돼 현재까지 적용된 단지가 9개에 불과하다. 롯데건설은 단지

명으로 ‘르엘 팔라티노(LE-EL PALATINO)’를 제안했다.

외관 설계는 호텔 설계 전문 그룹인 HBA와 미디어아트 의 거장 이이남 작가가 맡는다. 시그니얼 서울 레지던스의 인테리어를 설계한 최시영 건축가가 인테리어를 맡았고, Front와 DnSP에서 각각 상가의 외관과 내부 설계를 맡았다.

또한 디즈니월드 조경 설계에 참여했으며 미국 1위 조경설계사인 swa와 협업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살리고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더한 명품 조경을 계획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르엘에 대해 ‘한남 써밋(HANNAM SUMMIT)’을 제안했다. 글로벌 설계그룹인 JERDE와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그룹 STOSS, 이석우 디자이너가 이끄는 SWNA가 협업한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입찰지침에 따른 설계변경을 반영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왼쪽부터)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명현관 해남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마리오 아자르 블랙앤드비치 대표, 브래드 허딘 TGK 대표 겸 다이오드 벤처스 대표, 채정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 레이첼 애트버리 다이오드 벤처스 이사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보성그룹

보성그룹-전남도, 2.8兆 글로벌 투자유치

美 합작법인 TGK와 투자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보성그룹이 전라남도도와 함께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민선 8기 1호’ 외국인 투자를 끌어냈다. 이번 투자유치는 민간이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그룹은 지난 21일 미국 켄자시티에 있는 블랙앤드비치 본사에서 다이오드 벤처스와 EIP자산운용의 합작법인인 TGK(The Green Korea)와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TGK와 보성그룹은

데이터센터 개발을 주관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MW(메가와트)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데이터센터 5기(총 200MW)를 건립한다.

솔라시도는 전남도와 해남군, 보성그룹이 전남 해남군 일대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이며 RE100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적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우뚝 설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상영 기자 ksy2291@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54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총 5개 단지에서 1540가구가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성남동 ‘성남 수진역 파라곤(오피스텔), 강원 강릉시 지변동 ‘강릉 더리브 퍼스

티지’, 충남 천안시 부대동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총 12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28일에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 뷰’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30일에는 경기 성남시 성남동 일대 오피스텔 ‘성남 수진역 파라곤’이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14곳이다. 인천 서

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윈’과 충남 천안시 청당동 ‘천안 롯데캐슬 더청당’이 3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건분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14곳이다.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 경남 사천시 용현면 ‘e편한세상 사천 스키마리나’ 등이 30일 건분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26 (월)	계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계양유타입유폴레스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윈 (~9/30)	
				원주시	관설동	힐스테이트원주레스티지 (~9/29)	
				칠곡군	석적읍	우방아이유엘유라빌 (~9/28)	
				거제시	장송포동	거제유니온로제이비움(오피스텔) (~9/28)	
				양산시	중부동	양산금호리첸시아시그니처 (~9/28)	
				아산시	권곡동	아산한신더뷰 (~9/28)	
				경기	성남시	성남동	성남수진역파라곤
9/27 (화)	접수	강원	강릉시	지변동	강릉더리브퍼스티지 1순위		
				전남	장성군	장성바울루체 1순위	
				충남	천안시	부성역우남퍼스티빌 1순위 (당해지역)	
				경남	거제시	이주동	거제한신더뷰 (~9/29)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남전주(서)서스타힐스 (~9/29)
				충남	천안시	청당동	천안롯데캐슬더청당 (~9/30)
9/28 (수)	접수	강원	강릉시	지변동	강릉더리브퍼스티지 2순위		
				전남	장성군	장성바울루체 2순위	
				충남	천안시	부성역우남퍼스티빌 1순위 (기타지역)	
9/29 (목)	접수	충남	천안시	부대동	부성역우남퍼스티빌 2순위		
				계약	전북	전주시	반월동

날짜	구분	시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30 (금)	오른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센트레빌더오피스텔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스타힐스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역자이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
				경북	경산시	입량읍	경산차이아파트
				경북	구미시	상모동	e편한세상구미스모트리베뉴
				경북	포항시	구룡읍	포항푸르지오마린시티
				경남	사천시	용현면	e편한세상사천스키마리나
				경남	창원시	양덕동	창원롯데캐슬하버팰리스
				전북	군산시	구암동	대삼산프리미엄
발표	계약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익산충흥클래스퍼스트파크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경기	성남시	성남동	성남수진역파라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계양유타입유폴레스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자이르네오션 (~10/2)
10/1 (토)	계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역금호아울러퍼스트 (~10/2)		
				경기	성남시	성남동	성남수진역파라곤 (~10/3)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블랙리스트·성희롱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예비 예술인 등 보호대상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성폭력 피해 포괄하는 권리 보장 내용 적용 심리상담·의료비 등 지원 마련

예술인과 예비예술인의 권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 시행됐다.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으로 권리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갑질은 물론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벌여졌던 성범죄도 사라질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날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우선 보호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취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화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법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까지 포괄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발언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타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예술적 성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또한 '표현의 자

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연극계 등에서 취약한 입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배우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성희롱 발언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권리 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

권리보장지원센터의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필요시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권리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항목에 전년 대비 11.3% 늘어난 828억 원을 편성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창작준비금 2만3000명 지원 △예술활동증명 심의 절차 전담인력 8명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꽃 기자 pgot@



“서울시와 함께 걸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함께 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출발해 흥인지문을 거쳐 종묘와 창덕궁 사이를 잇는 율곡터널을 지나 광화문광장에 도착하는 4.4km 코스다. 연합뉴스

“겨우 해방”... “아직 확진 걱정” 기대·우려 교차하는 학교 현장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학교 축제나 체육수업·체험학습 등 실외 행사에 대해 학부모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5일 방역당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가 시행 532일 만에 전면 해제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기대가 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맞춰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놀이와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행사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0인 이상',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역당국 발표로 이러한 조항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는 10~11월 독감과 코로나19의 유행

세를 확인하고 '마스크 해제'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 씨는 “코로나 시기에 둘째가 초등학교를 거의 3년 동안 마스크 없이 다닌 적이 없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다면 이에 적극 따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수업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안에서는 쓴다는 건데 어차피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고,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에 걸리는 마당에 실내 마스크 해제도 된다면 적극적으로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11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이모 씨는 해당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첫째 아이는 물론 태어날 아이에게도 마스크는 씌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사실 고민되긴 하지만 코로나가 예방이 중요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는 예방만이 답인 것 같다”며 “그렇지만 다른 부모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민 금융피해 '0' 되는 날까지 직접 뛰겠습니다”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새출발

피해자 구제·출소자 사회정착 등 변호사 선임 여유 없는 이들 위해 경험 살려 국선변호사 활동 나서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다.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본지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이들이 변호사로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7월 퇴사해 변호사 사무실(대현 법률사무소)을 개업한 김종현 변호사는 “법무

부 인권구조과장으로 늘 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도왔던 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 전문가들과 협업도 시도하고 있다는 그는 “서민 금융 피해와 관련 절차적 권리, 의사진술 권리 등 나름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모르는 피해자가 많다”며 “서민 금융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민원을 들어주는 일도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들의 환경을 잘 이해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인권국을 떠나 법률사무소 다반에서 일하는 김연정 변호사는 “여성아동

인권과장으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보려 한다”며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을 만들며 피해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에서 정책을 만들며 실현해 보고 싶었던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인권팀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변호사단을 꾸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퇴사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정소연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소년형사재판 사건을 많이 다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많이 살펴봤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며 “강의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정책·사업 곳곳에 아직도 ‘갱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출소자사회 정착지원’, ‘법무보호복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왼쪽부터 김종현·김연정·정소연 변호사.

“스크린골프 골프존 저작권 침해”? 가상세계 저작권 분쟁 신호탄 되나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스크린골프의 저작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세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학계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9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골프장 코스 등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스크린골프 업체)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토목공사업체와 골프장 건설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골프존에게 두 회사에 각각 11억6586만 원과 16억7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코스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은 지식재산권 권위자인 정성호 서울대 교수 논문 일부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반도체 등 신사업 중심 매출 8% 연구개발 투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과 차세대통신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에 매진할 계획이다.

삼성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소재·신구조에 대한 R&D를 강화하는 등 지난 30년간 선도해 온 메모리 기술에서 초격차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 삼성전자는 2021년 10월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한 14nm D램 양산을 발표하며 앞선 기술력을 확인시켰다.

삼성전자는 또 고성능·저전력AP, 5G·6G 통신모뎀 등 초고속통신 반도체, 고화질 이미지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스템반도체 및 센서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AI 글로벌 연구개발 역량 확보와 기반 생태계 구축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전 세계 7개 지역의 글로벌 AI 센터를 통해 선행 기술연구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3G·4G·5G 통신을 선도해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통신(6G) 분야에서 R&D 리더십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G 핵심 기술 선점 및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통신 분야에서 초격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2조5965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집행했으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1%에 이른다.

AI에 3.6조 투입... 실제 활용 위한 생태계 마련



LG가 혁신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전하기 위한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LG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차세대 먹거리로 짚고 향후 5년간 AI 데이터 분야 연구개발에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 기술 선점과 인재영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LG는 지난해 12월 초거대 멀티모달 AI 'EXAONE'(엑사원)을 전격 공개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사고·학습·판단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LG는 글로벌 초거대 AI 생태계도 구축한다. LG는 지난 2월 LG AI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13개 기업이 모인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초거대 AI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이종산업간 협력하는 첫 민간 연합체다.



미국 뉴욕 파슨스 캠퍼스에서 LG AI연구원과 파슨스 관계자들이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LG

AI 석학 등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하며 연구역량 또한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미시간주에 LG AI 리서치 신설해 AI 연구 네트워크도 전 세계로 확장한다.

LG는 2018년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C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AI 분야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LG의 주요 회사 6곳이 출자한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다. LG는 AI 분야에 적극 투자해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능형 자율공장 체제 전환



LG전자가 디지털전환과 첨단기술을 앞세워 체계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 생산기지를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으로 꼽는 모빌리티, 로봇 사업 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LG스마트파크(창원사업장의 새 이름)를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하며 지능형 자율공장 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 혁신을 주도한다. 실제로 스마트파크 구축으로 생산성을 20% 향상시켰고 새로운 냉장고 모델 생산을 위한 라인 개발 및 구축 기간도 30% 짧아졌다.

로봇과 모빌리티로 새로운 미래 비전도 제시한다. LG전자는 지난 CES2022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인 'LG 옴니팻'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LG 씽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동차가 이동 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창원 소재 LG 스마트파크 전경. 사진제공 LG전자

호텔, 병원, 레저타운, F&B(식음료) 등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안내로봇 'LG 클로이 가이드봇'에 이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 'LG 클로이 서버봇' 2종(선반형, 서랍형)도 출시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방역 작업 로봇 'LG 클로이 살균봇',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LG 클로이 바리스타봇'도 선보였다.

LG전자는 차별화된 혁신 기술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성장한다는 지향점을 달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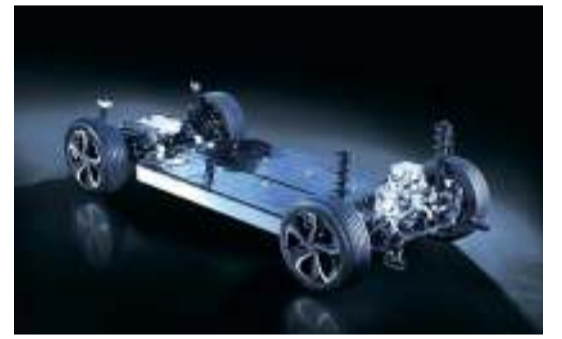
신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어 미래사업 가속



현대자동차그룹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과 배터리 모듈화 등을 포함한 배터리 종합 전략,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기차(EV) 상품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기차 전용 플랫폼 'eS' 등 신규 전용 전기차 플랫폼 2종을 도입한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2조 원을 투자해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며 기아는 2025년 PBV 양산을 목표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eM 플랫폼은 표준 모듈 적용으로 E-GMP 대비 공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 특징으로, 모든 차급을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다. 주행가능거리는 아이오닉 5 대비 50% 이상 개선되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과 전 차종 무선 업데이트 기문화 등 여러 신기술이 탑재된다. eS 플랫폼은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유연한 구조로 개발돼 딜리버리(배달·배송)와 카셰어링(차량 호출) 등 B2B(기업 간



기아 EV6에 적용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사진제공 현대자동차그룹

거래)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의 투자 계획 12조 원은 미래사업 투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구체적으로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신사업 관련 기술 개발 투자 4조3000억 원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상 전략 지원 투자 4조 8000억 원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전자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투자 등 2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아이오닉 5, EV6 등에 적용된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의 후속으로 기존 플랫폼을 개선하고 나아가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개발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다.

독립형 후륜 조향시스템 개발 등 車 부품 혁신



현대모비스는 핵심 기술 강화와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사업 분야인 차량용 부품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독립형 후륜 조향시스템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 기술상을 받았다.

올해 이 상을 받은 아시아 부품사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기존 후륜 조향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뒷바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최대 10도가까이 움직일 수 있어 회전 시 선회 반경을 25%가량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분야의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



독립형 후륜 조향시스템.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적 투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징 레이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젠다'에 전략적 지원 투자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 '벨로디안'에 지원 투자를 진행했으며,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기반의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기술 개발을 위해 영국 '엔비직스'와도 지원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수강·저탄소 판재... 친환경 소재 기술 올인



현대제철은 전기차 모터에 적용되는 고성능 특수강 부품 관련 핵심기술,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저감한 저탄소 판재에 이르는 친환경 소재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재 80(G80EV)과 신형 G90에 신규 강종을 공급 중이다. 지난해부터 현대차에 초도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14.5만 장을 공급한다. 이는 전기차 약 3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1.8GPa 초고강도 핫스탬핑강은 차량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돌 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또 지난해 1.5GPa급 MS(Martensitic)강판의 개발을 완료했다. 현대제철이 개발한 1.5GPa MS 강판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1.5GPa MS강판'으로 명명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개발한 '프리미엄 1.5GPa MS강판'은 기존 동일 규격 강판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은 보완한 것이 특징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 및 범퍼, 루프사이드 보강



저탄소 판재 부품. 사진제공 현대제철

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프리미엄 1.5GPa MS강판' 개발로 그동안 유럽, 미주 철강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초고강도 냉연강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향후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공급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미세 성분 조정이 가능한 특수강 전기로 정련 기술과 자동차용 초고장력강 압연 기술을 활용해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30% 이상 줄이면서도 기존 전기로에서 생산하지 못했던 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사업 발판 '100년 한화' 도약



한화그룹은 항공우주, 그린에너지, 디지털금융 등 미래사업을 단기간 내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한화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넘어 '100년 한화'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선제 투자로 우주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 씨트랙이아가 참여한 그룹 내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 한화시스템과 씨트랙이아의 위성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우주연구원과 500kg 규모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에 착수했으며, 우주 행성 자원을 이용해 물과 산소, 발사체 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우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선진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자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한화솔루션 유럽지사 큐에너지가 프랑스에서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진제공 한화그룹

화시스템은 우주인터넷용 위성 사업회사인 원웹(OneWeb)에 3억 달러(약 3450억 원)를 투자하면서 원웹의 이사진이 됐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위성 648기로 우주인터넷망을 완성해 글로벌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확보한 '기후 변화 대응 기술(Climate Tech)'을 활용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모듈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탠덤셀)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AI·이차전지' 新사업 글로벌 인재 확보 총력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친환경미래소재 사업 비전과 인재 확보에 나섰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지난 16일 스탠포드, UC 버클리 등 서부지역 주요 대학 석박사들과 실리콘밸리 지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재직 중인 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의 친환경미래소재 사업 비전을 공유하고 △AI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 분야의 연구·개발(R&D)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은 "포스코그룹은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가 됐으며, 이제는 혁신적인 친환경 미래소재 기술을 개발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해 나아갈 계획이다"며 "특히 미래기술연구원은 기술인재 누구나 일하고 싶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발전할 것인 만큼 여기 모이신 많은 기술인재가 포스



미래기술연구원은 미국 주요 대학 석박사 등과 비전을 공유하고 R&D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포스코홀딩스

코그룹과 새로운 도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포스코그룹 미래기술포럼'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동부지역의 MIT, 하버드, 토론토, 조지아텍 등 친환경미래소재 우수인력을 보유한 대학과 기관도 방문해 리쿠르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도 함께 참여해 스타급 인재를 포항공과대학 교수로 영입을 추진하는 등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0년간 5.3兆 R&D 투자... 2.5만개 특허 결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992년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2차 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약 30여 년이 지난 현재 이 회사는 기술과 제품, 고객, 생산능력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4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도 최고 수준의 QCD(품질·비용·납기)를 제공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익성 일등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에서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5조3000억 원을 R&D 투자에 쏟았고, 그 결과 소재와 공정, 핵심기술 분야에서 2만5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대비 4%를 연구개발비에 집중했다.

또 전 세계 3300여 명의 R&D 인력이 포진해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셀 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허를 벗어나 신규 배터리를 개발하는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 21700, 18650 원통형 배터리(왼쪽부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표현되는 많은 기술과 제품을 보유 중이다. 배터리 충전 속도를 줄여주는 더블 레이어(Double Layer) 코팅 기술을 비롯해 하이니켈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이 대표적이다.

또 소형부터 대형까지 원통형, 각형, 파우치 등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구 가격대 및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LG에너지솔루션만의 강점이다.

바이오섬유시장 개척... 친환경의류소재 저변 확대



효성그룹은 국내 대표 섬유 기업으로서 쌓아온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소재 시장을 개척하며 혁신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의 소재 분야에서의 강점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 대응해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효성티앤씨의 친환경 리사이클섬유 '리젠(regen)', 바이오 섬유 크레오라바이오베이스드(creora bio-based),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등 신 소재를 개발,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세계 스판덱스 섬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효성티앤씨는 축적된 섬유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을 자체 개발했다. 리젠은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섬유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다.

효성티앤씨는 리젠을 통해 섬유시장에서 자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패션 시장에서 친환경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옥수수 원료 스판덱스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 사진제공 효성티앤씨

최근 세계 최초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해 만든 바이오스판덱스인 '크레오라바이오베이스드'를 상용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효성티앤씨는 향후 바이오스판덱스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는 등 바이오섬유시장 개척을 통해 친환경의류소재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전주탄소섬유공장에서 2028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2만4000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인 '꿈의 첨단소재'다. 최근 수소차 연료탱크의 핵심소재로 수요가 늘고 있다.

수소 생산부터 판매까지... 2050년 넷제로 달성



S-OIL은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탄소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중장기 투자 로드맵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다.

S-OIL은 신사업 분야 중에서 특히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수소 산업 전반에서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초 S-OIL은 사우디 아랍코와 석유화학 신기술(TC2C), 저탄소(lower carbon) 미래 에너지 생산 관련 연구개발(R&D), 벤처 투자 등 대체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S-OIL과 사우디 아랍코는 경쟁력 있는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를 국내에 들여와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잠재 협력 기회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수소 생산, 탄소 포집 관련 신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탄소 중립 연료인 이퓨얼(e-Fuel)의 연구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



S-OIL·사우디 아랍코 수소협력 MOU 체결식. 사진제공 S-OIL

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우디 아랍코와 S-OIL의 블루수소 협력 MOU는 글로벌수소 에너지 생산국과 수요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양국 간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S-OIL은 작년 10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S-OIL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수소 산업 전반의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첫 무용제 컬러강판 등 친환경 사업 주력



단일 공장 기준 글로벌 1위 컬러강판 제조사 동국제강이 컬러강판 사업 분야 환경 유해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첫 성과가 '럭스틸 BM유니글라스(Luxteel Biomass Uniglass)'다. 럭스틸 BM유니글라스는 동국제강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용제형' 컬러강판이다. 동국제강 중앙기술연구소가 독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DK컬러 비전 2030'에서 발표한 컬러강판 '필환경 지속성장'의 일환이며, 기존 공정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 저감할 수 있다.

럭스틸 BM유니글라스는 바이오매스 도료를 적용한 친환경 컬러강판이다. 컬러강판 도료는 수지, 용제, 안료 등 구성된다. 그 중 용제가 절반을 차지한다. 용제(solvent)는 석유계 원료다. 도료의 점성을 조절하기 위해 쓰인다. 제조 과정에 필수적이지만 가열 건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동국제강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용제를 없앴다.



동국제강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용제형 컬러강판 '럭스틸 BM 유니글라스'. 사진제공 동국제강

휘발성 용제가 전혀 없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용제가 필요 없는 수지를 만드는 것이 친환경 핵심 기술이다.

동국제강 럭스틸 BM유니글라스는 주요 고객사와 함께 생산성 검증 및 제품 개발 협의 과정을 거치고 본격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동국제강은 최근 친환경 건설·가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럭스틸 BM유니글라스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은 물론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기부터 이머니 적립까지 '이마트앱'서 한번에



이마트는 이마트앱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 공간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앱은 최근 2~3년간 오프라인 전용 혜택 다양화, 결제 기능 탑재 등으로 강력해지고 있다.

이마트 D/T부서는 이마트앱 고도화에 집중,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마트는 디지털 전략을 통해 사람의 노하우 위주로 운영되던 매장을 디지털화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제단장한 이마트앱에서는 고객별 이머니, 신세계포인트 등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앱 개편과 함께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머니'도 내놨다. 이마트앱으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면 '이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매장에 비치된 전단에 '이머니 로고' QR코드를 촬영해 광고영상 시청 후 추가로 적립도 된다.

올해 이마트앱은 쇼핑 편의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였다. 지난 5월 이마트앱에 간편결제 서비스(SSGPAY)를 탑재하고, '이마트페이'를 공식 오픈했다. 이마트페이는 단 한 번의 바코드 스캔으로 결제, 이머니/신세계 포인트 등 적립이 자동화됐다. 이달에는 기존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와인그랩'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마트앱에서 와인, 위스키, 리큐어(Liquor) 주문 후 매장에서 당일부터 픽업하는 스마트오더 기능에 더해, 데이터 기반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 바코드 스캔 등 쇼핑 기능이 강화됐다. '와인그랩'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상품 쇼핑 후 주문·결제까지 간편하게 가능하고, 결제 당일부터 전국 130개 이마트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친환경·디지털 아이디어 넘친 '제1회 해커톤'



GS그룹은 지난 6월 29일 친환경·디지털 신사업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GS그룹 해커톤 결선 투자발표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평소 일상에서 느낀 고객의 불편 사항과 현장의 문제를 자유롭게 나누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 함께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주로 실리콘밸리의 IT기업의 기업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GS그룹의 미래성장 슬로건인 '지속가능한 성장(Grow Sustainably)'을 주제로 친환경과 디지털을 적용한 신사업 아이디어와 고객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이번 대회는 GS그룹의 각 계열사 직원 609명이 자율적으로 참가 신청했다. 이 중 13개 계열사 직원들이 섞여 4~5명씩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총 330명 68개 팀이 본선 대회를 치르고 이날 결선에 올랐다.

참가 팀들은 저마다 고객과 사업 현장에서 발견한 현상들을 계열사 직원의 다양한 시각으로 깊게 살펴



해커톤 결선 투자발표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 GS그룹

문제를 정의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프로토타입(사업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제1회 GS그룹 해커톤 결선 투자발표회에서는 '소음 데이터 머신러닝 분석을 통한 설비 안전 감지 사업', 'GS더프레시와 GS25 점포를 연계해 배송 포장재 낭비를 줄이는 우리들의 냉장도 사업', '건설현장의 폐기 안전모 리사이클링 사업' 등 GS의 다양한 계열사 사업과 현장의 관점이 반영된 아이디어가 쏟아지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 활용해 '디지털 전환' 주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제일 CnC로 설립된 후 CJ 계열사의 시스템 통합(SI)과 시스템 관리(SM) 사업을 담당해 왔다.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에 맞게 제조와 유통, 물류, 미디어 등 생활문화 기반의 IT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계열사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통해 대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디지털전환(DT)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제조 공장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컨설팅부터 제조 실행 시스템, 자동화 서비스, 검사 설비, 운영 등 전 과정을 토탈 서비스로 제공하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과 생산 모니터링, 품질관리 시스템, 설비 관리, 모바일 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팩토리 관련 다양한 플랫폼도 제공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클라우드센터는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하이



CJ올리브네트웍스 클라우드센터. 사진제공 CJ올리브네트웍스

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빌링 포털(Billing Portal) 시스템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 사용량 및 비용을 관리할 수 있고, 상세 과금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 분야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NFT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NFT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tvN과 함께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 해설 방송에 업계 최초로 AI 보이스 클로닝(AI Voice Cloning) 도입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헬스케어·물류·생산·블록체인... 전방위 DT 혁신



"브랜드, 디자인, IT 등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단기 성과만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빠르고 정확한 실행력이 뒷받침된 도전을 천명하고 미래 역량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롯데는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중앙제어는 지난달 22일 전기차 충전서비스 브랜드 '이브이시스(EVSIS)'를 출시했다. 이브이시스는 사용자와 앱, PC 웹, 충전기를 통합 연결하는 충전 운영 플랫폼이다. 연말까지 롯데그룹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주요 도심지 주차장에 급속·중급속 위주의 충전기를 1500기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헬스케어는 내년 상반기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을 선보이기 위해 외부기관 투자,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7월 글로벌 유전체 분석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신약개발기업 테라젠바이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중앙제어는 지난달 22일 전기차 충전 운영 플랫폼 '이브이시스' 앱을 출시하며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에 진출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물류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롯데 중부권 메가 허브 터미널'이 대표적이다. AI 3분류 시스템과 5면 바코드 스캐너, 물량 분산 최적화 시스템 등 각종 첨단 기술로 무장했다.

디지털 콘텐츠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도 본격화했다. 대흥기획이 7월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코' 지분을 인수했고, 롯데홈쇼핑은 NFT 중심의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코' 체질개선 성공



KT는 2020년 10월 '통신 기업'(TELCO)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 디지코)'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의미한다. 통신회사로 시작한 KT가 이제는 유·무선 통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ICT 인프라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함이다.

KT는 1999년 메가패스로 초고속인터넷을 상용화해 1년 만에 초고속 인터넷 1위 사업자에 오르며 22년째 대한민국 1위 통신 사업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국 가가 인터넷 커버리지 99%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확산의 1등 공신으로 고품질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이폰을 도입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5G 상용화까지 무선분야의 경쟁력과 기술력도 입증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대표 통신 사업자였던 KT가 2020년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KT 직원들이 목동IDC2센터에 시범 적용된 'AI IDC 오퍼레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디지코 KT'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 'ABC' 중심의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질개선은 호실적을 거두며 이후 주기도 견인했다. 글로벌 경제 변수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시가총액 10조 원도 회복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힌 KT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ABC 역량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B2B 산업을 주도하게 된 셈이다.

신성장동력 수소경제 전반 밸류체인 구축 선언



코오롱그룹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경영 메시지인 '부유와 명성(Rich&Famous) 2022'를 선언하며 성장의 미래가치를 사회와 나누며 번성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신사업과 친환경 사업 부문 연구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며 각 사업부문의 협업 능력, 차별화된 기술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코오롱을 만들어가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소재부품 분야 핵심 기술력을 토대로 그룹사 간 시너지를 일으켜 수소경제 전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은 그룹 내 수소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수소시장의 핵심소재 통합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는 멤브레인 설계·제조 기술과 수소연료전지용 분리막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사업을 확장해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수분 제어장치는 수소연료전지의 전기가 잘 발생하도록 습도를 조절하는 핵심부품으로 2013년 국내 최초 양산 체제



코오롱 One&Only EUIW 전경. 사진제공 코오롱그룹

를 갖췄고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고분자전해질막(PEM)도 지난해 초 국내 최초로 양산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다. PEM 설비는 특히 에너지저장장치용(ESS) 산화환원 흐름전지와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술에 적용되는 분리막도 생산할 수 있어 확장성이 기대된다. 막전극접합체(MEA)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ALL NEW START ALL NEW PLAY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9.29(목)
-
10.2(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하나원큐에서
TICKETING



LADIES
ASIAN
TOUR
SERIES



이민지
Minjee Lee

파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김효주
Hyo-Joo Kim

임희정
Hee-Jeong Lim

송가은
Ga-Eun Song

박민지
Min-Ji Park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2022.9.29(목)-10.2(일)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LADIES
ASIAN
TOUR
SERIES

“신산업 육성정책 맞춰 역대급 학과 신설·개편”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기획국장

반도체·바이오·그린에너지·AI·모빌리티 매년 700억 투입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 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반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미래모빌리티 등 5대 중점 산업의 인재양성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학과 신설(350억 원)을 포함해 매년 약 700억 원을 투자한다.”

김종진(사진)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 기획국장은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기준 전국 252개 학과 중 31.7%(80개 과) 수준인 신산업분야 학과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반

도체, 그린에너지, AI·디지털 분야 학과를 20개씩 신설하고,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학과 신설·개편 배경에 대해 김 국장은 “사업의 무게 추가 전통산업과 기간·전략산업에서 신산업 쪽으로 옮겨가면서 변화하는 산업 환경의 일자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맞춰 청년층 대상 고수준 훈련과정(하이테크과정)도 늘려왔는데 훈련 인원을 2022년 1230명에서 2025년 233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폴리텍이 그동안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에 주력하면서 취업률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최초 종합 반도체대학인 ‘반도체융합캠퍼스’가 있는 안성캠퍼스를 비롯해 성남(소재), 청주(장비 유지보수), 아산(후공정) 캠퍼스에서 반도체 공정과 직무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

준 반도체 학과 평균 취업률은 86.1%, 졸업생 취업 만족도를 가능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은 95.1%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국 폴리텍 캠퍼스 평균 수치(취업률 79.0%·유지취업률 91.0%)를 웃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취업률 92.4%)의 경우 전국 전문대 반도체 관련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제대로 기르는 건 폴리텍이 몫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며 “5대 중점산업 분야 인력양성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무게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은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이다. 폴리텍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3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수시 1차 신입생(5172명)을 모집하고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사천재공 한국폴리텍대학

‘히잡 시위’에 인터넷 끊은 이란서 머스크 “스타링크 서비스 활성화”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와 민간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사진)가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오늘 이란 국민의 인터넷·정보 자유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이란 정부의 검열에 맞서기 위해 디지털 통신에 더 많은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머스크 CEO가 이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란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일부 면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재무부는 이란 정부의 검열에 맞서기 위한 통신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일부를 제재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블링컨 장관의 트위터에 머스크 CEO는 “스타링크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달고 이란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이란에선 22세 이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후 이란 당국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끊고 자국민의 SNS 사용을 금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동원 ‘국제 해안 클린업데이’ 행사



동원산업은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환경을 위한 ‘국제 해안 클린업데이(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수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논의하는 회의체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에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기획했다. 동원산업은 SeaBOS의 유일한 한국 기업 회원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동원산업 본사 인근의 서울 양재천과 부산시 영도구의 감지해변(사진) 등에서 임직원들은 4인 1조로 양재천 각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회원사들이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의 종류와 수거량은 SeaBOS 공용 앱에 실시간으로 등록돼 데이터로 관리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사천재공 동원산업

송호성 기아 사장, 아프리카서 5박6일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다음으로 투표권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

현대차그룹은 25일, 기아 송호성 사장이 지난 18일부터 5박 6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공화국, 짐바브웨공화국을 잇달아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치고 23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송호성 사장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첫 외교부 장관 기업인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송호성 사장은 이들 국가의 주요 인사들

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과거 전쟁과 빈곤 등 다양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 해결과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라며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신흥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하며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



송호성(가운데) 기아 사장이 20일 모잠비크공화국 수도 마푸투에서 엘테비나 마테라(왼쪽) 모잠비크 문화관광부 장관, 질베르토 멘데스 스포츠사무국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천재공 현대차그룹

의 국가다”라고 덧붙였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하토야마 前 총리, 명량해전 왜군 문헌 진도 왜덕산 위령제서

“日,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전남 진도군 고군면에서 열린 ‘왜덕산 위령제’에 참석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한국 진도문화원과 일본 교토평화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위령제 참가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추모사에서 “일본은 한때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을 안겨줬다”며

“고통을 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죄만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앞에서는 적군도, 아군도 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것을 일본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왜덕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한국과 일본의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길 때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왜덕산은 명량해전 당시 숨진 일본군의 시신을 진도 주민들이 묻어준 산이다. 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4일 왜덕산 위령제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뉴스시스

체는 적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왜인들에게 덕을 베풀었다고 해 왜덕산으로 불리고 있다.

송석주 기자 ssp@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신규 선임 △소통메시지비서관 김철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은성호
- ◆환경부 ◇국장급 승진 △원주지방환경청장 김경환 △전북지방환경청장 김은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노희경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구범 △기후전략과장 김진식 △신기후체제대응팀장 김지수 △대기관리과장 오흔진 △환경교육팀장 최선두 △수질관리과장 박만규 △수자원정책과장 박병언 △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생물다양성과장 정환진 △국토환경정책과장 차은철 △환경영향평가과장 이창규 △환경피해구제과장 서민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영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양하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신동인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윤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장성현 △“환경감시단장 이병훈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박성돈
-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 김가로
-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박연진 ◇과장급 전보 △녹색도시과장 박정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김희천
-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어촌양식정책관 권순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광용 ◇과장급 전보 △어촌어항재생과장 고송수 △코로나19 긴급대응반장 김병구 △감사담당관 정규삼 △운영지원과장 류종영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경 △수산정책과장 황준성 △양식산업과장 김미숙 △어촌어항과장 김원중 △항만운영과장 최종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임영훈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장진수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 송장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장 우봉출
-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자본시장조사단장 손성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주흥민 △구조개선정책과장 진선영 △보험과장 신상훈 △금융혁신과장 이동원 △금융샌드박스팀장 이종립 △인신보험팀장 김보균 △기업구조개선과장 김수호
-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과장 김정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농촌지원국장 권철의 ◇과장급 전보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노형일 ◇과장급 승진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김지성
- ◆기상청 △기획조정관 유상진
- ◆커리어케어 △PEPG본부 부분부장 겸 C&D팀장 전우 정명호 △PEPG본부 DSG2팀장 상무 김병관
- ◆한겨레 △데스크(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문) △디지털뉴스부 이승준 ◇팀장(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문 미디어기획부) △소셜미디어팀장 김미영 △영상콘텐츠팀장 채반석 △테크팀장 전종필(편집국 이슈부문 사회부) △이슈팀장 박수지
- ◆매일경제신문 ◇상무 승진 △매경닷컴 겸 엠블록 대표 김정옥 ◇이사대우 승진 △논설실장 겸 세지포 총괄 임원 김병수 △광고담당 임원 김한중 ◇국장 전보 △KDX 대표 장용수 ◇국장 승진 △편집국장 이진우 ◇국장대우 전보 △광고국장 직무대리 구형현 ◇국장대우 승진 △매경비즈 겸 여플 대표 장중희 ◇부국장 전보 △매경출판 대표 최경선 ◇부국장대우 전보 △매일경제TV 겸 매경헬스 대표 김경도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김대영 △유통부장 김선결 ◇부국장대우 승진 △특자국장 직무대리 윤상환 △전산국장 직무대리 정일영 △선임기자 이병

문 △전문기자 정혁훈 △엠플러스센터장 겸 국제경제전문기자 노영우 ◇부장 전보 △논설실 논설위원 이은아 △경제부장 채수환 △디지털뉴스부장 황인혁 △KDX 총괄 겸 CTO 정재원 ◇부장 승진 △논설실 논설위원 김인수 △금융부장 송성훈 △증권부장 황형우 △벤처과학부장 남기현 △기획실 기획부장 황순우 △편집부장 이상현 ◇부장대우 전보 △디지털테크부장 직무대리 장용승 △국제부장 직무대리 이항휘 △부동산부장 직무대리 서찬동 △사회부장 직무대리 이호승 △콘텐츠기획부장 직무대리 김기철

- ◆매일방송(MBN) △대표이사 전무 이동원 ◇국장 승진 △논설실장 정운갑 ◇국장대우 승진 △심의실장 직무대리 박병호 ◇부장 △디지털국 디지털뉴스부장 정광재 ◇부장 승진 △디지털국 디지털콘텐츠부장 이무형 △보도국 국제부 위싱턴특파원 최중락 ◇부장대우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장 직무대리 김명준 ◇부장대우 승진 △MBN미디어텍 영상취재부 김중현 △보도국장직 박찬정 △MBN미디어텍 기술국 시스템운영부 박세훈 △보도국 국제부장 직무대리 김희경 △경영지원국 관리부장 직무대리 김훈 △보도국 전국부 강세훈 △콘텐츠BIZ국 영상자료부장 직무대리 오상길
- ◆뉴스토마토 △건설부동산부 부장 강영관

‘만다라’ ‘국수’ 김성동 작가 별세

소설 ‘만다라’, ‘국수’ 등을 집필한 김성동 작가가 25일 오전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 작가는 최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947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1964년 서울 서라벌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도봉산 천축사로 출가했다.

1975년 ‘주간종교’에서 불교계의 이면을 보여준 단편 소설 ‘뚝타조’로 당선돼 등단했다. 1978년 ‘한국문학’에 한 수도승의 삶을 다룬 중편 소설 ‘만다라’를 발표해 당선됐으며, 이듬해 장편으로 선보였다. ‘병속에 든 새’라는 화두를 풀어낸 ‘만다라’는 1981년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로 영화화됐고, 1982년 프랑스어로 번역돼 해외로 소개됐다.

1991년 문화일보 창간호에 연재를 시작한 ‘국수’(鬪手)는 27년 만인 2018년 6권으로 끝맺었다. 1880~1890년대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 격변을 배경으로 조선 예인과 민중의 삶을 다뤘다.

고인은 신동엽작가기념상(1985), 현대불교문학상(1998·2002), 이태준문학상(2016) 등을 수상했다.

빈소는 건국대충주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7일이다. 박꽃 기자 pgot@

부음

- ▲정수경 씨 별세, 오명훈·영훈(세계한인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성훈(신안산대 교수) 씨 모친상 = 24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6일 오전 9시 2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58-5940
- ▲오정옥 씨 별세, 김준명(현대차기아 커뮤니케이션센터 기술PR팀장)·정연 씨 모친상, 배호정(성사고교 교사) 씨 시모상, 송찬호(한구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씨 장모상 = 24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2030-4444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한국협상학회 고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통상은 정보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주요국의 입법과정에서 빠른 정보 습득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효과적인 통상전략 실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된다는 의미이다. 정권 교체 시마다 바뀌는 통상 조직과 인적 구성으로 안정되고 조직적인 통상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미국의 연이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 발표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반도체과학법'을 통하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신규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첨단급(메모리의 경우 14나노,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28나노) 투자를 금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한정하겠다고 하였다.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 및 부품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그 비중을 2028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9월 12일 발표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에서는 미국에서 발명한 생명공학 분야 성과물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2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도록 관련 부처에 명령하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반도체, 인공지

능, 양자기술 분야 등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의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놓았고, 곧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기술유출 방지를 통한 경쟁력 유지와 주요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통상 조치를 동원한 셈이다.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인도태평양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미국 주도 '동맹'에의 참여 권유와 '투자유치'를 위한 일정으로 꾸며졌다. 결국 삼성, LG, SK, 현대차그룹 등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가장 큰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 환한 웃음과 함께 출국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조치에서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뿐만 아니라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형성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전미자동차노조(UAW) 가입이라는 조항을 없애는 성과를 거두며 미국 내 생산기업으로서

보조금 수혜 자격을 얻어내는 실력을 보여 주었다. 통상은 정보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주요국의 입법과정에서 빠른 정보 습득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효과적인 통상전략 실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 정권 교체 시마다 바뀌는 통상 조직과 인적 구성으로 안정되고 조직적인 통상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에 이어 미국 시장 2위를 달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전략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판매 대수 세계 3위를 기록하여 기업을 토하고 있고, 전기차의 경우에도 아이오닉5와 EV6 판매를 통하여 미국 시장에서 9%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워싱턴에 한국은 없었다.' 친환경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는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가 유럽으로 확산될 경우 "브뤼셀에도 한국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련의 정책 배경에 '중국 따돌리기'가 있다는 게 정설이다. 배터리의 경우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투자를 통하여 소재광물인 리튬, 코발트 등의 채굴, 가공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대부분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이 요구하는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중국 또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에 산화철로 구성된 배터리로 대응할 수 있어 대중국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우리 기업의 입지만 어려워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통상에 있어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통상의 안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력한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논현로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전 국회입법조사관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손보험은 최초 판매 당시 보험 가입 즉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현재까지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몇 안 되는 좋은 보험상품이다. 대개 보험상품은 보험가입 후 보험 가입 기간 내 내 보험료만 내다가 사고나 질병, 사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가입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의문을 단숨에 깨뜨려 준 것이 실손보험이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개인형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 시 단독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보험료 역시 초기 실손보험에서는 다

른 상품에 부가하여 판매하는 부가형 상품으로 판매하여 보험료 역시 비싼 편에 속했던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그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대표로서 가입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일정 수입이 없는 가족 구성원은 가장이 납입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하면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5.3% 수준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를 뺀 수치이며 이러한 부분을 보장하려고 가입하는 상품이 민영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역시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보장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9원으로 14만6712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

당 평균 보험료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르게 된다고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평균 보험료는 약 2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40세 남자 기준 실손보험 월평균보험료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실손보험은 4만749원, 2세대 2만4738원, 3세대 1만3326원, 4세대 1만1982원이라고 예시하였다. 단순 추계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65%의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10만7441원이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비급여와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까지 평균적으로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연령, 직장, 지역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와는 거리가 상당수 있으나 이러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을 흡수하여 비급여와 자기부담금을 담보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

인 보장을 부족분을 해결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해마다 인상되는 민영보험의 보험인상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민영보험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비급여 및 자기부담금을 의료급여 전문가인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의 특약으로 실손보험을 관리한다면 좀 더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나올 수 있다. 보험업계가 현재 실손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손해율이 늘어가다 보니 실손보험상품은 보험사에 있어서 계속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암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더라도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팽창을 거듭해왔으며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차제에 건강보험의 65%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35%를 담보하는 민영보험의 실손보험을 흡수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특약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산타애나 명언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데뷔작 '미의 의식'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설명해 T.S.엘리엇 등에게 영향을 준 미국 철학자 겸 시인, 평론가다. 그는 '존재의 영역' 외에 루크레티우스, 단테, 괴테를 논한 평론 '3인의 시인 철학자', 푸리터니즘이 미국 문화에 끼친 영향을 비판한 '궁지에 선 고상한 전통' 등 주요 저작을 남겼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63-1952. ☆ 고사성어 /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연암집 권1 초정집서(楚亭集序)에 썼다. "옛것을 본받은 이들이 옛것에 구속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들은 그 불경(不經)됨을 걱정한다." 고문(古文)을 단순히 모방하는 방고(仿古)를 가장 경계한 박지원이 옛것을 본받으면서도 변화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도 근본을 잃지 않는 문장법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그의 이런 문제상의 혁신으로 탄생한 작품이 '열하일기(熱河日記)'다. ☆ 시사상식 / 자전거 경제(bicycle economy) '중국 경제는 심각한 내부 문제 때문에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만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국제 금융 전문가 주장이다. 1990년대 이후 매년 10%대의 고도성장을 계속해 온 중국 경제를 전문가들은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과 1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등 내부 문제를 들어 낙관적으론만 보지 않는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제 금융계가 지적한 데서 유래했다. ☆ 우리말 유래 / 사나이 '소나하'('소+아하')가 옛말이다. '소'는 남자를 의미하고, '아하'는 아이를 말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범근 / 금융부



예대금리차 공시제라는 폭탄

"은행권은 신뢰와 이미지가 생명이다. 매달 공개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가 시작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 같아 아쉽다." 얼마 전 만난 시중 은행장의 낮두리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공개됐다. 8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51%로 전월(7월) 대비 0.14%p 확대됐다. 예대금리

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를 말하는데, 은행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의 핵심 요소다. 예대금리차가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는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고, 대출자들에게 실제 편익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매달 20일 이 수치가 공개되면 은행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1위를 차지하는 은행은 한 달간 이자장사가 혈안이 된 고리대금 업체로 낙인찍힌다. 7월과 8월 예대

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두 회사는 발표 직후 해명자료까지 냈다. 두 번째 공시 만에 고금리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수치가 별도로 공시됐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0.31%로 KB국민은행(1.73%), 신한은행(1.63%)보다 훨씬 낮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공간이 커진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예대금리차공시 시행 두 달을 맞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쟁을 통한 예대금리차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달보다 지난달 가계예대금리차는 확대됐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은행 간 금리경쟁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은행의 평균예대금리가 곧 '내 금리'는 아니다. 은행 상품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 금리 가산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내게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예대금리차 줄 세우기가 과연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nova@

금감원장과 한은의 경고

얼마 전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기업 얘기를 먼저 꺼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년 초면 한계 기업의 부실 위험이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금리 인상,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이 가혹한 상황에서 기업 전반의 이자 상환 능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를 담은 경고다. 한계기업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지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계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를 숫자로 보여줬다. 작년 기준 한계기업 수와 차입금의 비중은 각 14.9%, 14.8%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준(14.8%, 15.0%)까지 줄었다. 매출 증가와 수익성 회복의 결과였는데, 올해 최악의 경영 여건 시나리오에서 한계기업 수와 차입금 비중은 각 18.6%, 19.5%까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의 최근 1년 기업 신용 증가율이 유지되고, 올해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보다 1.4%포인트(p) 오르면서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위 영업비용이 1%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된 시나리오다.

한은은 “한계기업의 비은행권 자금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등으로 한계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비은행권 중심으로 관련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1년 만에 15.8% 늘어난 994조 2000억 원의 자영업자 대출은 우리 경제

데스크칼럼

송영록
금융부장 대행



에 심각한 위험 요소다. 전체 기업부채 역시 247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 부채는 커지는데 대출 이자가 치솟는 중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장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미국의 하이엔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에 대응해 다음달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빅 스텝(0.50%p 인상)에 나설 수 있다. 베이비 스텝(0.25%p 인상)으로만 대응할 경우, 연말께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0%p까지 벌어져 환율·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기준금리 0.25%p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빅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환율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넘었다. 전경련이 25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올해 연평균 환율 수준을 1303원으로 예상했다. 1998년 외환위기(1395원)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초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망한 연평균 환율 수준인 1214원에 비해서 89원이나 높다. 연초에 올해 연평균 환

율을 1300원 이상으로 전망한 곳은 8.6%에 불과했다. 그만큼 지금 위기는 예상치 못했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 위기 당시 시작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고금리·고환율·저성장이 발목을 붙들고 있는 탓이다. 당정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내달 4일부터는 새출발자금도 출범한다.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선 정상 기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에 쓰여 금융 부실만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젠가 부실기업들의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차주에 대해 도움을 줘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잔인하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들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를 흑독한 추위 속으로 몰아넣는 걸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syr@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정치 실종이도를 넘었다. 민생과 경제 위기 대책은 뒷전이다.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사투를 벌이는 상황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당리당략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우리 정치인들은 판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여권은 국민의힘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 ‘설화’ 진화에 급급하다. 지난 3개월 행태는 한 편의 저질 정치드라마였다. 중징계와 가져분, 체리따봉, 양두구육, 신군부, 제명 등의 단어가 잘 대변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연급 조역으로 등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해관의 이전투구로 몇 달을 허송했다. 내용은 진행형이다.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져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나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중요한 시간을 허망하게 날리고 있다. 국정동력과 지지율까지 까먹었다.

거대 야당은 정치공세와 포퓰리즘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비속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한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맞불 공세다. 반기업 입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했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건 2018년 문재인 정부였다. 법인세를 정상화해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 90%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우선 처리과제다. 노조가 불법 쟁위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찾기에 동분서주하는 기업인들도 국감에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싸움을 하는 동안 기업은 생존계임을 벌이고 있다. 환율 쇼크에 화학 철강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외화부채가 많은 항공사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환율 상승 = 수출 증가’라는 등식이 무너져 수출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수요 위축으로 전망도 어둡다.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 위기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그런데도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서 낫잡을 자고 있다. 상정하는 데만 47일 걸렸다. 언제 처리될지 기약도 없다.

그들만의 정치싸움에 멍드는 건 국민과 기업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매달리고 여권이 전 정권 사정에 집착하는 한 타협이 쉽지 않다. 여야 회동 때마다 강조한 협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몇 달 전 약속한 여야정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여야다. 정말 앞이 안 보인다.

마감 후

박병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원전의 명예회복, 압박받는 신재생

이달 20일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쉽게 말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에너지를 뜻한다. ‘탈원전’의 명예를 메던 원전이 명예회복을 하는 순간이다.

원전은 부침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 정권에선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계획했던 원전 건설 취소를 하는가 하면 오래된 원전은 계획보다 조기 폐쇄를 했다. 원전업계 입장에서 겨울과 같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고 원전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원전 활성화는 물론 원전 수출에도 힘을 가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원전 부활의 신호탄을 날리는 동시에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그간 설움을 받았던 원전의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오려면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폐물 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전의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순탄해 보인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조사를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운영실태

를 이달 13일 발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2276건, 금액으로 2616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조사하지 못한 것들은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현 정부는 부인하지만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압박이란 시각도 있다.

에너지는 정쟁화 대상이 돼선 안 되는 분야라고 본다. 특히 사방이 막혀 사실상 삼나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그렇다. 원전, 신재생 모두 우리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 정권에 따라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 맞게 에너지 믹스를 균형 있게 담아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햇빛과 바람을 그냥 버리기보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아직 효율이 잘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명예회복, 압박 이런 단어보다 조화, 균형이 더 가치 있다. 전 세계가 에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다시 편가르는 과오는 더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의 어려움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

riby@

특허, 특!

머스크의 말실수 혹은 사실왜곡

일론 머스크는 최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 엑스’를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우주선을 제작하는 재료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특허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특허는 타인의 혁신을 방해하는 차단장치일 뿐이라면서 마치 전정터의 지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실제로 2014년에 테슬라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 대상이 소규모에 불과한 다른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화석연료 차량회사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해서, 테슬라의 특허개방이 전기차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시도임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발사체와 위성체 사업을 주로 하는 스페이스 엑스는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까?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스페이스 엑스가 보유한 특허는

49건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소형 발사체 사업을 하는 ‘로켓 랩’이라는 회사의 특허가 11건임을 보면 적은 수라고 할 수도 없다. 테슬라의 특허를 살펴보면 군수용에 쓰일 수 있는 로켓 관련 기술은 거의 없고 민간 부문에 응용될 수 있는 통신용 안테나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우주산업에 사용되는 복잡한 반도체는 초정밀 주문반도체 제작이 가능한 TSMC가 있는 대안에만, 정말 안테나 장치는 정밀 기계가공이 가능한 독일에만 전략적으로 출원하고 있다.

사실 로켓기술은 군사기술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밀로 취급하거나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특허의 의미가 없기도 하다. 방송에서 질문한 우주선용의 새로운 재료만약 있다 해도 스텔스기의 재료처럼 역시 군사기술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을 일으킨 다른 발언과 마찬가지로 머스크의 특허 발언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실수이거나 사실 왜곡에 가깝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취향이 곧 채널이 되는 A.tv

검색하지 않아도 내 취향 저격 콘텐츠를 미리 받아
바로 보여 주는, 본 적 없는 TV의 시작



이제 A.tv로 세상 편하게 즐겨보세요



자동 다운로드
당신이 즐겨 보던 것들을 기억하고 잠든 사이 미리 다운로드해 드려요



바로 보는 추천
검색하거나 설정하지 않아도 꼭 맞는 콘텐츠를 바로 추천해 드려요



손쉽게 넘기는 화면
손가락만 까딱까딱, 콘텐츠와 채널을 쉽고 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 위 콘텐츠는 예시이며, 일정 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iOS 추후 업데이트)



일상의 디지털 메이트, 에이닷